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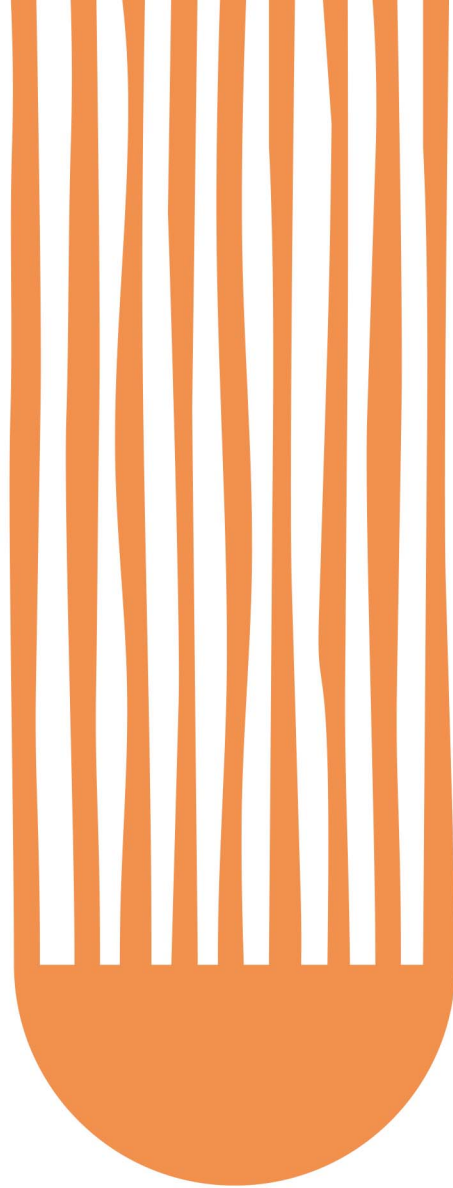


## 에듀원 콘텐츠 저작권 안내

(주)에듀원에서 제공하는 보충자료입니다. 아래의 콘텐츠 저작권 고지를 반드시 인지하시어 사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 콘텐츠에 실린 모든 편집 구성 및 형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주)에듀원에 있으며,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재, 전송, 배포, 2차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콘텐츠 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타 사이트나 카페, 블로그, 웹하드, P2P 등 (주)에듀원으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온·오프라인에서의 공유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작권에 대해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 → '1:1문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및 해설

# 100발 100중

고등 내신 1등급을 위한 기출문제집

## 고등영어

# B

# 03 Take Action, Make a Difference

## W 교과서 핵심 어휘 확인 문제 p.008

- 01 ⑤  
 02 (1) sticky (2) ordinary (3) donate (4) alert (5) sacrifice  
 03 ③ 04 ③

- 01 ⑤는 '깊게 : 가볍게'라는 뜻의 반의어 관계이고, 나머지는 모두 유의어 관계이다.  
 ① 작동하다 ② 장소 ③ ~인 것 같다 ④ 결론 짓다
- 02 (1) 끈적거리기는 끈적거리거나 들러붙는 물질로 덮여 있는  
 (2) 보통의: 특별하거나 독특한 특징이 없는; 평범한  
 (3) 기부하다: 사람이나 기관을 돕기 위해 돈이나 물품을 주다  
 (4) 경계경보: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경고나 주의  
 (5) 희생하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귀중한 무언가를 포기하다
- 03 빈칸에는 공통으로 '조치를 취하다'라는 뜻을 가진 ③ take action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우리는 CO<sub>2</sub>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emission: (가스, 열 등의) 배출, 배기[배출]가스)  
 • 만약 우리가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① ~을 돕다 ② 엉망으로 만든다 ④ ~에 기여하다 ⑤ ~을 대신하다
- 04 <보기>와 ③의 spread는 '퍼뜨리다'라는 뜻의 동사로 쓰였다.  
 그는 전 세계에 그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퍼뜨리길 원했다.  
 ① 그것은 드넓은 숲을 가지고 있다. (㉠ 범위, 분포)  
 ② 그는 토스트에 버터를 발랐다. (㉡ (얇게) 바르다)  
 ③ 그녀는 그 노인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 (gossip: 소문(= rumor))  
 ④ 내 남동생은 접혀 있는 담요를 침대에 펼쳤다. (㉢ 펼치다)  
 ⑤ 케이 팝의 확산은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성장 중이다. (㉣ 확산)

## C 교과서 핵심 대화 p.009-010

- 01 ④ 02 ②
- 01 밑줄 친 부분과 ①②③⑤는 유감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④는 '그것은 새로운 생각이다.'라는 뜻이므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A: 나는 하루에 두 시간씩 수학을 공부했지만 기말 시험에서 탈락했어.  
 B: 그 말을 들으니 유감이구나.
- 02 밑줄 친 부분과 ①③④⑤는 '도와줄까요?'라는 의미이고, ②는 '저 좀 도와줄 수 있나요?'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이므로 의미가 다르다.

## C 교과서 기타 대화 p.011

- 01 T 02 T
- 01 민수는 수연이가 그 물건들을 선물 포장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주길 원한다.  
 02 대민이는 혼자서 집에 가는 것에 대해 걱정했다.

## C 교과서 핵심 대화 확인 문제 p.012

- 01 ③ 02 ㉠ → ㉡ → ㉢ → ㉣ → ㉤ 03 ③
- 01 빈칸에는 계단에서 떨어져서 다친 준섭이에게 유감을 나타내는 표현인 ③ '그 말을 들어 유감이구나.'가 적절하다.

- ① 너한테 잘 되었구나.  
 ② 나는 네가 자랑스럽구나.  
 ④ 계단을 이용하는 게 어때?  
 ⑤ 오, 네 물건 챙기는 것 잊지 마. (trip over: ~에 발이 걸려 넘어지다)
- 02 A: 어제 여기 근처에서 자동차 사고가 있었던 거 알고 있었니?  
 ㉠ 응. 사실, 작년엔 같은 지점에서 다른 사고도 있었어.  
 ㉡ 무섭구나. 그곳에서 더 이상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어.  
 ㉢ 나도 그래. 우리가 그것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 아마 할 수 있을 거야. 안전한 운전 캠페인을 하는 건 어때?  
 ㉤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해 보자.
- 03 ③ '콘서트 티켓을 두 장 얻어서 콘서트에 함께 가자'는 A의 제안에 B의 '안됐구나.'라는 대답은 자연스럽게 않다.  
 ① A: 나는 어제 교과서를 잃어버렸어.  
 B: 그 말을 들으니 유감이구나.  
 ② A: 오, 해야 할 집안일이 많아.  
 B: 내가 도와줄까?  
 ④ A: 홍수 때문에 그곳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어.  
 B: 그 말을 들으니 슬프구나.  
 ⑤ A: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노인들이 건강 악화, 가난 그리고 외로움과 고군분투하고 계셔.  
 B: 우리가 그것에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 G 교과서 핵심 문법 p.013-014

- 01 delighted → delight  
 02 What we wish is that natural disasters never occur anywhere.
- 01 「to one's + 감정 명사」 구조로 형용사 delighted를 명사 delight로 고쳐 쓴다.  
 우리가 기쁘게도,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의 캠페인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참여하셨다.
- 02 '~은 (바로) ... 것이다'라는 의미의 「What + 주어 + 동사 + is(was) + 접속사 that절」을 이용해 문장을 완성한다.

## G 교과서 핵심 문법 확인 문제 1 p.015

- 01 (1) 내가 슬프게도, 그들은 남미로 떠났다.  
 (2) 그가 기쁘게도, 그의 아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땀다.  
 (3) Ella가 즐겁게도, 그녀는 오늘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들과 소풍을 갔다.  
 (4) 많은 팬들이 실망스럽게도, 그 가수는 콘서트 투어를 거절했다.
- 02 (1) horror (2) their (3) satisfaction (4) Victoria's
- 03 (1) To my disappointment  
 (2) To his regret  
 (3) To her embarrassment
- 01 「to one's + 감정 명사」는 '~가 ...하게도'라는 의미를 가진다.
- 02 「to one's + 감정 명사」는 '~가 ...하게도'라는 뜻을 나타내므로 (1)의 형용사 horrible을 명사 horror로 바꾸고, (2)의 명사 sadness를 수식하는 자리에 목적격 them은 알맞지 않으므로 소유격 their로 고치며, (3)의 부사 satisfactorily를 명사 satisfaction으로 고치고, (4)의 감정 명사 앞에 감정의 주체는 소유격으로 나타내므로 Victoria를 소유격 Victoria's로 고쳐 써야 한다.  
 (1) 내가 무섭게도, 그 이발사가 내 머리를 거의 밀어 버렸다.  
 (2) 그들이 슬프게도, 그들의 사랑스런 개가 이번 주말에 죽었다.  
 (3) Daina가 만족스럽게도, 그녀는 친구가 결혼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4) Victoria가 당황스럽게도, 그녀의 친구들이 갑자기 그녀의 집에 들어왔다.
- 03 「to one's + 감정 명사」는 '~가 ...하게도'라는 뜻을 나타낸다. 따라서 To 다음에 주어를 각각 소유격 my, his, her로 바꾸고, 감정 형용사를 각각 regret, disappointment, embarrassment 등 감정 명사로 바꿔 써야 한다.  
 (1) 나는 수학 시험에서 C학점을 받고 실망했다.

- 내가 실망스럽게도, 나는 수학 시험에서 C학점을 받았다.
- (2) 그는 다시 어리석은 것을 해서 후회한다.  
후회스럽게도, 그는 다시 어리석은 것을 했다.
- (3) 그녀는 발표하는 동안 바지가 찢어지는 것을 느끼고 당황했다.  
그녀가 당황스럽게도, 그녀는 발표하는 동안 바지가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G** 교과서 핵심 문법 확인 문제 2

p.016

- 01 (1) 당신이 원하는 것은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는 것이다.  
(2) 아빠가 원하는 것은 내가 수학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다.  
(3)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4) 소음이 심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말했던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 02 (1) who → which[that] (2) which → that (3) were → was  
(4) That → What
- 03 (1) What she has in mind is that nobody cares about her.  
(2) What we were surprised about was that Theo challenged the champion.  
(3) What I dislike the most is that my children make a mess in the kitchen.  
(4) What you are thinking about is that my brother already completed the robot a week ago.

- 01 (1)(2) 「What + 주어 + 동사 + is(was) + 접속사 that절」로 '~은 (바로) ...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3)(4)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은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 02 (1) 선행사가 사물이며, 관계대명사 what과 바꿔 쓸 수 있는 The thing which[that]이므로 who를 which[that]로 바꿔 써야 한다.  
(2) 관계대명사 which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하는데 완전한 문장이 뒤따르므로 접속사 that으로 바꿔 써야 한다.  
(3) 관계대명사 what절이 문장의 주어 자리에 올 경우에 단수 취급하므로 were를 was로 바꿔 써야 한다.  
(4) That이 수식하는 선행사가 없으므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으로 바꿔 써야 한다.  
(1) 그가 건네 준 것은 일급 기밀이었다.  
(2) 그녀가 말해 준 것은 그가 이미 그 소식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3) 그들이 느꼈던 것은 그 호텔이 정말 찾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4) 내가 들었던 것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내일까지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 03 '~은 (바로) ... 것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What + 주어 + 동사 + is(was) + 접속사 that절」에 맞게 영작한다.

**R** 교과서 기타 지문

p.021

01 T 02 F

- 01 세 명은 사람들이 그들의 학교와 지역 사회를 위해서 행동을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02 그 작가는 사랑은 주고 받는 것이라고 느꼈다.

**R** 교과서 핵심 본문 다지기

p.022-023

- 01 who[that] 02 형용사적 03 for  
04 live up to what Dr. Schweitzer did  
05 우리가 취하는 작은 행동들이 06 who  
07 these yellow sticky notes 08 people  
09 그 일은 제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해서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10 words 11 ~하자마자 12 took action 13 making  
14 put them up 15 making 16 don't be 17 제가 놀랍게도

- 18 ~을 대체하다 19 words 20 선행사, 관계대명사  
21 ~에 기여하다 22 making 23 No matter how simple it is  
24 spreading 25 at 26 But[However]  
27 부사적 28 ~을 다루다 29 where he is going  
30 Wanderin g[To wander] 31 In fact 32 to wake  
33 ~에 착수하다 34 attached  
35 how deeply moved and excited my family and I were  
36 detecting 37 what 38 What  
39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40 would 41 were

**T** 내신 1등급 대비 1회

p.024~035

- 01 ② 02 ① 03 ③ 04 live up to 05 ⑤  
06 ③ 07 donate 08 ③ 09 ④ 10 ③  
11 ㉠ children at the community center ㉢ school items 12 ②  
13 (1) ㉢ (2) ㉠ (3) ㉡ 14 ⑤ 15 ⑤  
16 ㉢ → To my sadness 17 ⑤ 18 (1) his (2) disappointment  
19 are → is 20 ⑤ 21 ② 22 ② 23 what  
24 To their regret, a lucky shot from the other team lost them the game.  
25 What I heard is that Tom signed with the team again. 26 ③  
27 ⑤ 28 ④ 29 ④ 30 ⑤  
31 ㉠ took action ㉢ making a mess ㉡ taking the place of  
㉣ contribute to ㉤ looking forward to  
32 ④ 33 To my surprise 34 ④ 35 ③  
36 It was so hurtful and difficult to overcome. 37 ④ 38 ⑤  
39 ⑤ 40 ① 41 ④ 42 ③  
43 ② → what 또는 the thing(s) that[which]  
44 if all of us were to join in to help others with what we can and like to do best  
45 ③

- 01 ②는 '언다'라는 뜻의 유의어 관계이고, 나머지는 반의어 관계이다.  
① 얇은 : 두꺼운 ③ 괴롭히는 사람 : 희생자 ④ 붙이다 : 떼다  
⑤ 혐오스러운 : 사랑스러운
- 02 ① '무언가를 하는 중에 발을 헛디디서 넘어지다'는 trigger(촉발하다)의 영영풀이로 적절하지 않고, trip(발을 헛디디다)의 의미이다.  
② 환자: 아파서 의학적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③ 센서: 움직임, 빛, 소리 등에 의해 활성화되는 기구  
④ 장치: 기계나 장치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발명된 것 (gadget: 도구, 장치(= device))  
⑤ 꾸짖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 사람에게 화가 나서 말하다
- 03 '목적 없이 걷다, 배회하다 그리고 방랑하다'는 '돌아다니다'의 뜻을 가진 ③ wander의 영영풀이로 적절하다.  
① 궁금해 하다 ② 거주하다 ④ 이주하다 ⑤ 확신시키다
- 04 주어진 문장의 빈칸은 '부모님의 기대'를 목적으로 취하는 자리이므로 '(~의 기대에) 부응하다'라는 뜻을 가진 live up to가 가장 적절하다.  
A: 무슨 문제가 있니?  
B: 우리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힘들어.  
take action: 실행하다; 조치를 취하다, set out: ~에 착수하다, take the place of: ~을 대신하다
- 05 <보기>와 ⑤의 work는 '작동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쓰였다.  
그 기계는 잘 작동한다.  
① 나는 주말 내내 일해야 한다. (ⓧ 일하다)  
② 그 약은 두통에 효과가 있다. (ⓧ 효과가 있다)  
③ 그의 작품들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 작품)

- ④ 성별이 여전히 직장에서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친다. (Ⓣ 영향은 미친다)
- ⑤ 에어컨이 호텔 로비에서 작동 중이다.
- 06 ③은 '나는 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의미로 밑줄 친 부분은 '~에 치였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 ① 내 오빠는 항상 그의 방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  
 ② 그는 매주 화요일마다 있는 태권도를 기대한다.  
 ④ 이메일 보내는 것이 편지 쓰는 것을 대신해오고 있다.  
 ⑤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지역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 07 '기부하다'라는 뜻을 가진 donate가 적절하다.
- 08 밑줄 친 부분은 '그 말을 들으니 유감이다.'라는 뜻으로 ③의 '그녀의 유감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가장 적절하다.
- ① 그녀의 기쁨을 보여주기 위해서  
 ② 그녀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서  
 ④ 그녀의 질투를 나타내기 위해서  
 ⑤ 그녀의 우울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 09 ④ '민지는 준섭이의 부주의함을 비난했다.'는 내용은 이 대화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① 준섭이는 많은 고통을 느꼈다.  
 ② 계단은 미끄럽지 않았다.  
 ③ 준섭이의 부러진 다리는 많이 괜찮아지고 있다.  
 ⑤ 준섭이는 문자를 보내던 중에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
- 10 A와 B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③ '우리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가 가장 적절하다.
- ① 나를 도와줄 수 있니?  
 ② 도움이 필요하니?  
 ④ 자원 봉사를 하고 싶니?  
 ⑤ 그녀의 숙제를 도와줄 수 있니?
- 11 ⑥ 선물을 받는 대상인 children at the community center(주민 센터 아이들)를 가리킨다.
- ⑥ 그것들을 포장한다고 했으므로 school items(학용품들)를 가리킨다.
- 12 수연이는 주민 센터 아이들에게 물건을 기부하기 위해 포장을 하려고 하므로 ② '민수는 수연이가 선물 포장하는 것을 도와주길 원한다.'가 이 대화의 내용과 일치한다.
- ① 수연이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③ 민수는 주민 센터로 그 물건들을 나를 것이다.  
 ④ 수연이는 주민 센터에 갈 충분한 시간이 있다.  
 ⑤ 몇몇 학용품과 선물들을 아이들에게 줄 예정이다.
- 13 (1) 축구를 하다가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다쳤다는 대민의 말에 대한 답변이므로 ⑥의 '아, 많이 아팠겠구나.'가 적절하다.
- (2) 빈칸은 '방과 후에 집에 가는 걸 도와줄 수 있니?'라는 질문에 대한 질문이므로 ②의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가 적절하다.
- (3) 대민이의 도움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④의 '내가 너의 가방을 들어줄게.'가 적절하다.
- 14 대민이가 매일 축구를 하는지 알 수는 없으므로 ⑤ '대민이는 매일 축구를 하는가?'는 대답할 수 없다.
- ① 수연이는 대민이를 도와줄 것인가? - 대민이의 가방을 들어주기로 함.  
 ② 대민이는 언제 다쳤는가? - 어제 축구하다가  
 ③ 대민이는 어떤 걱정이 있었는가? - 집에 가는 내내 가방을 들고 가야 함.  
 ④ 대민이의 발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부러졌음.
- 15 ⑤ A의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때야.'라는 말에 '안됐구나. 너는 괜찮아질 거야.'라는 B의 답변은 자연스럽지 않다.
- ① A: 내가 좀 도와줄까?  
 B: 고마워. 그래 주면 좋겠어.  
 ② A: 학교 폭력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B: 그 말을 들으니 슬프구나.  
 ③ A: 오 이런! 나는 열쇠를 잃어버렸어.

- B: 안됐구나[유감이다]. 내가 도와줄까?
- ④ A: 너는 도움이 필요하니?  
 B: 아니, 내 생각에는 난 괜찮을 것 같아. 어쨌든 고마워.
- 16 「to one's + 감정 명사」의 구조이므로 형용사 sad를 명사 sadness로 고쳐 써야 한다.
-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기 우리 지역 사회의 어르신들을 돕는 데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요청하려고 나왔습니다. 슬프게도, 오늘날의 많은 어르신들이 좋지 않은 건강, 가난 그리고 외로움과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그들에게 뻗어주는 것이 우리 지역 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 17 ①②③④는 선행사가 없고, 빈칸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 뒤따르기 때문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 들어가야 한다. ⑤는 빈칸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뒤따르지만, 빈칸 앞에 선행사 The thing이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at이 아닌 which[that]가 알맞다.
- ① 그 스릴러 영화는 그녀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②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 나라가 평화로운 것이다.  
 ③ John은 그가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 약국에 갔다.  
 ④ 나는 당신의 선생님들이 당신을 위해 하셨던 것에 대해 감사 드리고 싶다.  
 ⑤ 내가 발견했던 것은 작은 강아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 18 「to one's + 감정 명사」이므로 (1)의 명사 wonder 앞에는 소유격 his가 적절하고, (2)의 소유격 다음에는 감정 명사(disappointment)가 적절하다.
- (1) 그가 놀랍게도, 아쿠아리움에 많은 상어들이 있었다.  
 (2) 그들이 실망스럽게도, 그 비는 대부분의 동물들이 동물원 실내에 머물게 했다.
- 19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절은 단수 취급하므로 are를 단수동사 is로 바꿔 써야 한다.
- 내가 걱정했던 것은 당신이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20 「to one's + 감정 명사」로 소유격 다음에는 명사가 와야 하므로 ⑤의 부사 excitedly를 명사 excitement로 고쳐 써야 한다.
- ① 놀랍게도, 모든 것이 완벽했다.  
 ② 내가 경악스럽게도, Patrick이 나무에서 떨어졌다.  
 ③ 그녀가 기쁘게도, Riu가 박사 학위를 땀다.  
 ④ 그들은 가보를 발견해서 놀랐다.  
 ⑤ 그가 흥분되게도, 그는 내일 그의 첫 번째 차를 구입할 것이다.
- 21 '~은 (바로) ... 것이다'라는 의미의 「What + 주어 + 동사 + is(was) + 접속사 that절」 구문을 이용한다.
- 22 ② 감정 명사 annoyance의 주체는 Sophia이므로 their를 her로 고쳐야 한다.
- ① 놀랍게도, Kevin은 장학금을 받았다.  
 Kevin이 놀랍게도, 그는 장학금을 받았다.  
 ② Sophia는 기차를 놓쳤기 때문에 약이 올랐다.  
 그녀가 약 오르게도, Sophia는 기차를 놓쳤다.  
 ③ 나는 그가 집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했다.  
 내가 흥분스럽게도, 그가 집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④ 그는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기뻐했다.  
 그가 기쁘게도, 그는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⑤ 그녀는 부동산 중개인이 그녀에게 적절한 가격의 집을 제공해줘서 만족스러웠다.  
 그녀가 만족스럽게도, 부동산 중개인이 그녀에게 적절한 가격의 집을 제공해줬다.
- 23 첫 번째 빈칸에는 의문사 what이 들어가야 하고, 두 번째 빈칸에는 주어 자리에 선행사가 없고 불완전한 문장이 뒤따르므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들어가야 하므로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what이다.
- 나는 Sarah가 요즘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다.  
 • 내가 깨달은 것은 내 부모님이 점점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 24 「to one's + 감정 명사」는 감정을 강조하는 부사로 '그들이 안타깝게도'를 To their regret으로 영작한다.
- 25 '~은 (바로) ... 것이다'라는 의미의 「What + 주어 + 동사 + is(was) + 접속사 that절」 구조를 이용하고, sign을 과거동사 signed로 바꿔 써야 한다.

- 26 ㉠와 ㉡는 감정의 주체가 '그녀'이고, 놀란 이유는 'Lucas가 음반 제작자가 되길 원해서'이기 때문이다.  
 ㉢ Lucas는 음반 제작자가 돼서 놀랐다.  
 ㉣ 놀랍게도, Lucas는 음반 제작자가 되길 원한다.  
 ㉤ 그녀가 놀랍게도, Lucas는 음반 제작자가 되길 원한다.  
 ㉥ 그가 놀랍게도, Lucas는 음반 제작자가 되길 원한다.  
 ㉦ 그녀는 Lucas가 음반 제작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놀랐다.  
 ㉧ 사람들은 Lucas가 음반 제작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놀랐다.
- 27 ①②③은 that 앞에 선행사가 없고, 불완전한 문장이 뒤따르기 때문에 that을 선행사가 포함된 관계대명사 what으로 고쳐야 한다. ④는 「What + 주어 + 동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올 경우, 관계대명사 what절은 단수 취급하므로 are를 is로 고쳐 써야 한다.  
 ① 그 고전들은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이다.  
 ② 그가 요즘 하는 것은 매일 산책하는 것이다.  
 ③ 당신이 내게 구입하라고 한 것을 내일까지 보내겠습니다.  
 ④ Leo가 알고 있는 것은 그의 친구 또한 그를 좋아한다는 사실이다.  
 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누군가 김치와 라면을 가져오는 것이다.
- 28 평범한 사람들이 Schweitzer 박사가 하였던 만큼 맞춰 사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는 맥락이므로 extraordinary(비범한, 특별한)를 ordinary(평범한)로 고쳐 써야 한다.
- 29 (A) 주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 souls(사람들)가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는 내용이므로 themselves가 적절하다.  
 (B) '~에 살다'라는 의미의 표현은 live in이므로 to부정사 다음에 전치사 in이 필요하다.  
 (C) 선행사인 두 십 대들이 그러한 행동을 취한다는 의미의 능동이기 때문에 have taken이 적절하다.
- 30 마지막 문장에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행동을 실천해 온 두 학생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⑤ '십 대들이 이웃 사람들을 위한 작은 행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Schweitzer 박사의 일이다.  
 ② 평범한 십 대들의 말을 듣는 것이 어른들이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③ 우리 가족들을 위한 작은 행동들이 변화를 만들지 않는다.  
 ④ 사람들이 Schweitzer 박사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쉽다.
- 31 ㉠ 이어지는 문장에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는 쪽지를 게시하여 친절을 퍼뜨린다고 했으므로 take action(조치를 취하다)이 알맞고, 과거의 일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took action으로 고쳐 써야 한다.  
 ㉢ 쪽지를 학교 여기저기에 붙여서 구직자를 들었으므로 빈칸에는 make a mess(엉망으로 만들다)가 적절하고, 전치사 for 다음에 동명사가 나와야 하므로 making a mess로 고쳐 써야 한다.  
 ㉣ 긍정적이고 강력한 말들이 부정적인 말들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흐름이 적절하므로 take the place of가 알맞고, be동사 다음에 나오므로 현재진행형 taking the place of로 고쳐 써야 한다.  
 ㉤ 평범한 십 대들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맥락이므로 contribute to(~에 기여하다)가 적절하다.  
 ㉦ 긍정적인 쪽지 메시지가 전 세계에 퍼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흐름이므로 look forward to(~을 기대하다)가 적절하고, be동사 다음에 나오므로 현재진행형 looking forward to로 고쳐 써야 한다.
- 32 one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words(복수 명사)를 가리키므로 ones로 고쳐 써야 한다.
- 33 「to one's + 감정 명사」는 '~가 ...하게도'라는 뜻으로 감정을 강조하는 부사구이며, 내가 놀란 것이므로 To my surprise가 적절하다.
- 34 이 글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쓴 쪽지를 학교에 붙여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내용으로,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④ '긍정적인 메시지와 같은 작은 행동들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가 필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하다.  
 ① 실망은 항상 성공 전에 온다.  
 ② SNS 유명 인사들의 많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읽어라. (celebrity: 유명 인사)

- ③ 오직 고등학생들만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  
 ⑤ '긍정적인 포스트잇 데이'는 많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35 (A) 사람들을 격려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통해서 빈칸에 긍정적인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strength(힘)가 적절하다. (frustration: 좌절)  
 (B) 바로 뒤에 마음이 아팠다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글쓴이의 SNS에 혐오스러운(hateful) 글을 올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oving: 사랑스러운)  
 (C) 괴롭히는 사람들은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만 글쓴이는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것이라고 했으므로 encourage(용기를 북돋다)가 알맞다. (discourage: 낙담시키다)
- 36 '~하기에 너무 ...한'의 뜻을 가진 「so + 형용사 + to부정사」 구조를 활용한다.
- 37 글쓴이가 중학생일 때 누군가 글쓴이의 휴대 전화를 사용하여 글쓴이의 SNS에 혐오스러운 글을 올려서 힘들어 했지만,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 한 후 자신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말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으므로 ④ '절망적인 → 긍정적인'이 가장 적절하다.  
 ① 질투하는 → 기쁜 ② 외로운 → 놀란 ③ 행복한 → 걱정하는  
 ⑤ 기쁜 → 실망한
- 38 ㉠와 ㉡는 「감정 형용사 + to부정사」로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감정의 원인)으로 '~해서 ...한'이라는 뜻을 가진다. ①③④는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②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① 골프를 배우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② 그들은 그들의 부모님과 함께 해외 여행할 시간을 낼 것이다.  
 ③ 독거노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④ 내 친구들은 우리의 숙제를 마친 후에 농구를 하길 원한다.  
 ⑤ 나는 그 가수의 새 앨범이 빌보드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매우 기뻐다.
- 39 환자가 침대 밖으로 나갔을 때 간병인의 스마트폰에 경보를 작동시킨다는 내용이므로 stops(멈추다)를 triggers(촉발하다)로 고쳐 써야 한다.
- 40 (A) 밤에 헤매고 다니는 것은 위험한데, 실제로 간병인이 잠에서 깨지 못해 할아버지가 몇 건의 사고를 겪으셨다고 했으므로 In fact(사실, 실제로)가 적절하다.  
 (B) 할아버지를 돕고 싶어서 무선 시스템을 고안하는 일에 착수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므로 So(그래서, 그러므로)가 적절하다.  
 ② 또한 ..... 하지만  
 ③ 그때 ..... 마침내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 또한  
 ⑤ 예를 들어 ..... 그러므로
- 41 할아버지가 한밤중에 돌아다니실 때 간병인이 일어나지 못해 사고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④의 'Greg의 할아버지는 간병인의 도움 없이 침대 밖으로 발을 내디딜 수 없다.'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다.  
 ① Greg는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그의 기술들을 사용했다.  
 ② Greg의 할아버지는 때때로 밤에 헤매고 다니신다.  
 ③ Greg의 할아버지는 알츠하이머로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다.  
 ⑤ Greg는 간병인의 스마트폰에 경보를 보낼 수 있는 무선 시스템을 고안했다.
- 42 주어진 문장은 글쓴이가 고안한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필름이 부착된 작은 무선 회로를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B)의 This circuit(이 회로)이 주어진 문장의 '작은 무선회로'를 나타내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이 시스템이 할아버지가 돌아다니시는 것을 감지하는 효과가 있었고, 글쓴이는 가족들과 함께 기뻐했다고 언급한 (C)가 오고, 마지막으로 글쓴이가 자신의 기술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감명 받았다는 내용의 (A)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 43 관계대명사 which의 선행사가 없으므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나 the thing(s) that(which)으로 고쳐 써야 한다.
- 44 '만약 ~한다면 ...할 것이다.'의 뜻을 가진 가정법 미래(「If + 주어 + were to + 동사원형 ~, 주어 + 조동사의 과거형 + 동사원형 ...」)에 유의하여 was were 로 바꾸고, 「help + 목적어 + with + 명사」 구조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을 이용한다.
- 45 (B)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로 far, still, even, a lot으로 바꿔 쓸 수 있으며,

very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데 쓸 수 없다.

**T** **내신 1등급 대비 2회**

p.036-047

01 ③	02 ⑤	03 patient	04 ⑤	05 ②
06 looking forward to	07 ③	08 ⑤		
09 I'm sad to hear that. [That's a shame. / That's too bad. / It's a pity.]				
10 ④	11 ⑤			
12 I'd like these to be special gifts for the children.				13 ④
14 ③	15 ④	16 To his sorrow	17 ⑤	
18 horrify → horror	19 ④	20 ④	21 What, that	
22 ③				
23 What he did was that he updated the new software program.				
24 ③	25 ①, ⑤			
26 (1) To his disappointment (2) To her surprise 27 ②				
28 It may seem difficult or practically impossible for ordinary people to live up to what Dr. Schweitzer did.				
29 ④	30 ③			
31 a do 삭제 b feel 또는 to feel c making			32 ③	
33 ⑤	34 ③	35 ②		
36 What I learned from this experience			37 However	38 ③
39 ③	40 ⑤	41 ⑤	42 To my delight	
43 how deeply moved and excited my family and I were when we first saw my device detecting my grandfather's wandering				
44 ⑤	45 ①, ②, ④			

- 01 a 특정장 장소 또는 지점: b spot(장소)  
b 휴대 전화로 메시지를 보낸다: c text(문자 보내다)  
c 부분적으로 숨겨져 있거나 명확하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다: d detect(탐지하다; 발견하다)  
d 당국이나 공공 단체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e official(공식적인)  
e gain: 얻다
- 02 밑줄 친 normal은 '보통의, 평범한'이라는 뜻으로 e ordinary와 바꿔 쓸 수 있다. 공공 장소에서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은 평범하지 않다.  
a 독특한 b 중요한 c 흔하지 않은 d 사적인
- 03 첫 번째 빈칸에서는 '환자'라는 뜻과, 두 번째 빈칸에서는 '참을성(인내심) 있는'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patient가 적절하다.  
• 그 환자가 퇴원 할 예정이다.  
• 부모들은 그들의 아이들에게 인내심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 04 e의 made a mess는 '엉망으로 만들었다'라는 뜻으로, 뒤에 이어지는 '내가 방을 청소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부분과 어울리지 않는다. (didn't have to → have to)  
a 나는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다.  
b 그녀는 너의 기말시험을 도와줄 수 있다.  
c 그것이 우리가 제작에 착수한 두 번째 영화이다.  
d 우리는 세계 지도자들이 행동을 취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다.
- 05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는 b bully(괴롭히는 사람)이다.  
a 지배자 c 약자 d 교장 e 직원
- 06 '~을 기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은 look forward to이며, 문장의 시제에 맞게 현재진행형으로 바꾼 looking forward to가 적절하다.
- 07 c application은 모두 '지원'이라는 뜻의 명사로 쓰였다.  
a 엄마는 나에게 하루에 10번 문자를 보내신다. (동사)  
그 원고는 Steven이 썼다. (명사)  
b 그녀의 이름은 그녀의 할머니에서 비롯된 것이다. (명사)  
그들은 그 빌딩을 K-Tower라고 이름 지었다. (동사)  
c 이 지원서를 작성해 주시겠어요? (명사)

- 지원 시간은 어제 마감되었다. (명사)
- 4 나는 태풍 긴급 경계 경보를 들었다. (명사)  
그녀는 혼자서 수영하는 위험을 경계했다. (동사)
- 5 그녀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동사)  
환자들을 격리하는 것이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선택되었다. (명사)
- 08 A의 '네 다리에 무슨 일이 있었니?'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e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가 가장 적절하다.  
a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  
b 너를 다시 만나서 좋구나.  
c 나는 다리가 길지, 그렇지 않니?  
d 그것은 가격이 엄청 비싸구나.
- 09 (B)는 유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I'm sad to hear that. [That's a shame. / That's too bad. / It's a pity.]'와 바꿔 쓸 수 있다.
- 10 대화에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더 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d '두 사람은 언급된 장소에서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a 그들은 안전 운전에 대한 수업을 들을 것이다.  
b 그들이 그 사고에 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c 그들 중 한 명만 어제 차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d 어제 발생한 사고는 언급된 장소에서 일어난 첫 자동차 사고이다.
- 11 두 사람은 같은 장소에서 계속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 대해 염려하며 안전 운전 캠페인을 해 보기로 결심하므로 e '우려하는 → 결심한'이 가장 적절하다.  
a 평화로운 → 무서운 b 안정된 → 걱정하는 c 슬픈 → 엄숙한  
d 불행한 → 안도한
- 12 「would like + 목적어 + to부정사」 구조에 유의해 영작한다.
- 13 b '내가 도울 수 있을까?'는 민수가 수연이의 선물 포장에 도와주기 위해 물어보는 것으로 d '그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가장 적절하다.  
a 그녀가 서두르도록 만들기 위해  
b 그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c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  
d 그녀의 부족한 기술을 비난하기 위해
- 14 c의 Can I get your help?는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니?'라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Can I be of any help?가 적절하다.
- 15 발가락을 다친 대민이가 방과 후에 집에 가는 내내 가방을 들고 가야 해서 걱정했지만 수민이가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안심했으므로 d '걱정하는 → 안심한'이 가장 적절하다.  
a 흥분된 → 지루한 b 만족하는 → 궁금해 하는 c 행복한 → 확실하는  
d 불안한 → 당황스러운
- 16 '~가 ...하게도'라는 뜻인 「to one's + 감정 명사」를 이용해 To his sorrow로 쓴다. 그가 슬프게도, 그가 한 모든 것이 쓸모 없었다.
- 17 a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뒤따르므로 what을 접속사 that으로 고쳐 써야 한다.  
b 「What + 주어 + 동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올 경우, 즉, what이 이끄는 관계사절이 주어일 경우 단수 취급하므로 were를 was로 고쳐 써야 한다.  
c 관계대명사 what 앞에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that(which)으로 고쳐 써야 한다.  
d 관계대명사 Which 앞에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Which를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으로 고쳐 써야 한다.  
e 그가 고려 중인 것은 그가 군대에 자원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f 그가 고려 중인 것은 그가 군대에 자원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 18 「to one's + 감정 명사」로 소유격 다음에는 명사가 나와야 하므로 동사 horrify를 명사 horror로 고쳐 써야 한다.  
그녀가 무섭게도, 그녀는 강풍에 창문이 흔들리는 것을 봤다.
- 19 어법상 옳은 문장은 b이다. b는 which 앞에 선행사가 없고, 완전한 문장이 뒤따르므로 which를 접속사 that으로 바꾼다. c의 「What + 주어 + 동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올 경우, 관계대명사절은 단수 취급하므로 are를 is로 고쳐 써

- 야 한다. ㉔는 선행사가 The thing으로 사람이 아니므로 who를 that[which]으로 고쳐 써야 한다.
- ㉔ 그가 본 것은 문이 열린 것이다.
- ㉔ 내가 느끼는 것은 나의 가족이 항상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 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침대가 편안하다는 것이다.
- ㉔ 그녀가 도전한 것은 아무도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다.
- ㉔ 그들이 주목했던 것은 바로 Jeremy가 출장을 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 20 ㉔ 「to one's + 감정 명사」로 감정 명사 앞에 소유격이 나와야 하므로 명사 audience를 audience's로 고쳐 써야 한다.
- ① 그들이 안도하게도, 비행기가 정시에 도착했다.
- ② 그녀가 무섭게도, 그녀가 외출했을 때 강도가 침입했다.
- ③ 그 방이 충분히 커서 그는 만족했다.
- ④ 청중들이 흥분한 것은, 배우가 연기를 잘해서 였다.
- ⑤ 흥미롭게도, 그 영화는 예상보다 더 많은 의문점들을 제기했다.
- 21 (A) 선행사가 없고, 불완전한 문장이 뒤따르기 때문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 알맞다.
- (B) 보어 자리로 완전한 문장이 뒤따르기 때문에 명사절 접속사 that이 알맞다.
- 22 ㉔㉔㉔는 어법상 옳은 문장이다. 「to one's + 감정 명사」로 ㉔의 형용사 sad를 명사 sadness로 고쳐야 하고, ㉔의 명사 mother를 소유격 mother's로 고쳐 써야 한다.
- ㉔ 내가 슬프게도, Jack이 영화 끝에서 죽었다.
- ㉔ 그들이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콘서트를 늦게 취소했다.
- ㉔ 그녀의 어머니가 화나게도, 그녀는 침대를 정리하지 않았다.
- ㉔ 그가 만족스럽게도, 스테이크가 완벽하게 요리되었다.
- ㉔ 내가 놀랐게도, 나는 그의 연락처를 기억할 수 있었다.
- 23 ‘~은(바로) ... 것이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What + 주어 + 동사 + is(was) + 접속사 that절」 구조에 맞게 영작한다.
- 24 ‘~가 ...하게도’라는 의미를 가진 「to one's + 감정 명사」 구문을 이용한다.
- 25 빈칸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뒤따르기 때문에 주어로 쓰인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 또는 The thing that[which]이 적절하다.
- 그들이 발견한 것은 아무도 회의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 26 감정을 강조하는 부사구 「to one's + 감정 명사」 구조로 (1)은 To his disappointment(그가 실망하게도), (2)는 To her surprise(그녀가 놀랐게도)로 쓴다.
- (1) 그는 그의 친구들이 이미 집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했다.  
그가 실망스럽게도, 그는 그의 친구들이 이미 집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 (2) 그녀는 어제 경찰이 마침내 그 강도를 체포해서 놀랐다.  
그녀가 놀랐게도, 어제 경찰이 마침내 그 강도를 체포했다.
- 27 ㉔의 두 문장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예상했던 것만큼 당신이 똑똑하다는 것이다.’라는 뜻으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은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 28 가주어(It)-의미상의 주어 「for + ordinary people」-진주어(to부정사) 구문과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절에 유의하여 영작한다.
- 29 매일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하는 작은 행동들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맥락이므로 빈칸에는 ㉔ ‘make a difference(변화를 만들다)’가 가장 적절하다.
- ① 운동하다
- ② 이해가 되다
- ③ 엉망으로 만들다
- 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다
- 30 이 글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취하는 작은 행동으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했으므로 ㉔ ‘더 좋은 세상은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가 요지로 가장 적절하다.
- ①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②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변화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다.
- ④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 Schweitzer 박사가 했던 것과 똑같이 할 수 없다.
- ⑤ 역사상의 몇몇 위대한 위인들은 세상을 위해 그들 자신을 헌신해왔다.
- 31 ㉔ 간접의문문으로 「의문사 + 주어 + 동사」가 와야 하므로 do를 삭제한다.

- ㉔ 「help + 목적어 + 목적격 보어(동사원형, to 부정사)」 구조로 목적격 보어에 쓰인 feeling을 feel[to feel]로 고쳐 써야 한다.
- ㉔ 「spend + 시간[돈] + 동명사」로 made를 mak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32 주어인 문장에서 It은 글쓴이가 중학교 때 누군가 글쓴이의 사물함을 부수고 글쓴이의 휴대 전화를 사용해서 글쓴이의 SNS에 혐오스러운 글을 올렸다는 앞 문장을 가리킨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 But(하지만)이 오며 글쓴이가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한 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주어진 문장 ‘그 일은 제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해서 극복하기 힘들었다.’는 ㉔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33 긍정적인 메시지의 예시를 들고 있으므로 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해라.’는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너는 놀라워!
- ② 우리는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어.
- ③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치 있어!
- ④ 모든 사람들은 재능이 있고 너도 마찬가지야.
- 34 누군가 Annie의 사물함을 부셔서 그녀의 휴대 전화로 SNS에 혐오스러운 글을 썼다는 것은 언급되어 있지만 ㉔ 그녀의 휴대 전화를 누군가에 의해 파손되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① Annie는 오타와 출신이다.
- ② Annie는 현재 고등학교생이다.
- ④ 누군가 Annie의 SNS에 못된 메시지를 게시했다.
- ⑤ Annie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친절한 메시지를 만들면서 시간을 보냈다.
- 35 But(그러나)는 역접의 연결어이므로 ㉔의 앞은 글쓴이가 엉망으로 만들어서 귀중을 들었다는 내용이고, ㉔의 뒤는 그 캠페인이 지지를 얻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내용이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㉔가 가장 적절하다.
- 36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절에 유의한다.
- 37 「No matter how + 형용사」는 ‘아무리 ~해도’라는 뜻으로, No matter how를 However로 바꿔 쓸 수 있다.
- 38 처음에는 어질러 놓았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들어서 낙담했지만 곧 캠페인이 지지를 얻으면서 자신감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㉔의 ‘낙담한 → 자신감 있는’이 가장 적절하다.
- ① 희망찬 → 무관심한 ② 부끄러운 → 좌절된 ④ 자랑스러운 → 실망한
- ⑤ 당황한 → 겁먹은
- 39 Greg가 자신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계신 할아버지께 도움을 드리는 글이므로, ㉔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 나의 컴퓨터 기술 이용하기’가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 ① 어르신들에게서 기술과 지혜 배우기
- ②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법 소개하기
- ④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몇몇 간병인들과 공유하기
- ⑤ 밤에 돌아다니기: 범죄에 노출될 높은 가능성
- 40 (B)는 ‘제 나이에 누가 그러지 않았어요?’라는 뜻으로 바로 앞에 제시된 문장과 연결해서 자신의 또래라면 누구나 컴퓨터 게임을 좋아한다는 의미이므로 ㉔ ‘글쓴이 나이의 대부분의 십 대들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가 가장 적절하다.
- ① 글쓴이는 십 대들과 같은 또래이다.
- ② 글쓴이는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어 한다.
- ③ 글쓴이는 할아버지의 연세를 정확하게 모른다.
- ④ 글쓴이의 나이는 컴퓨터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
- 41 주어진 문장의 this system(이 시스템)은 앞 문장의 a wireless system(무선 시스템)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㉔가 가장 적절하다.
- 42 「to one's + 감정 명사」는 ‘~가 ...하게도’라는 의미로 감정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부사구를 이용하여 바꿔 쓸 수 있다.
- ‘기쁘게도, 그것이 작동했어요!’
- 43 간접의문문 「how + 형용사 + 주어 + 동사」 어순과 지각동사 「saw + 목적어 + 목적격 보어(현재분사)」 구문을 이용한다.
- 44 Greg가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장치를 개발해 할아버지를 도와 드렸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㉔ ‘나의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서’가 가장 적절하다.
- ① 나의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 ② 나의 기술을 숙달하면서
- ③ 나의 특징을 개발하면서
- ④ 나의 상황을 개선시키면서

45 ①②④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하는 것)이며, ③⑤는 '무엇'으로 해석하는 의문사 what이다.

## 수능형으로 끝내기

p.048~053

01 ①	02 ③	03 ④	04 ④	05 ⑤	06 ③
07 ①	08 ⑤	09 ④	10 ②	11 ③	12 ②
13 ④	14 ④	15 ④	16 ④	17 ②	18 ④

- 01 위대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는 맥락이므로 '멈춘다'라는 뜻의 stopped를 '희생했다'는 의미를 가진 sacrificed와 같은 단어로 고쳐야 써야 한다.
- 02 우리가 행하는 작은 행동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고, 그에 대한 예시로 두 십대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 이 글의 목적은 ③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행동을 실천하도록 고무하기 위해서'가 가장 적절하다. (inspire: 고무[격려]하다; 불어넣다, 불러일으키다)  
 ① 약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② 다른 사람들이 Schweitzer 박사가 했던 것을 하도록 동기 부여하기 위해서  
 ④ 특별한 사람이 삶에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⑤ 사람들이 도움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 03 누군가 글쓴이의 휴대 전화로 글쓴이의 SNS에 혐오스러운 글을 올려서 상처를 받았다는 경험담을 이야기하므로 ④ '그래서 나는 새로운 스마트폰의 특징들을 내 SNS 페이지에 게시했다.'라는 문장은 글의 흐름과 어울리지 않다.
- 04 주어진 문장은 고등학교가 시작하자마자 글쓴이가 행동을 취했다는 내용으로, 그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C)의 The idea, 즉 학교에 긍정적인 내용의 쪽지를 붙이고 다녔다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학교에 이 쪽지를 붙이고 다닌 후 꾸지람을 들었다는 내용인 (A)가 오고, 마지막으로 글쓴이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내용인 (B)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 05 대명사(them)는 동사와 부사 사이에 오기 때문에 put them up이 알맞다.
- 06 ordinary는 '평범한'이라는 뜻으로, 평범한 십 대들도 작은 행동을 통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③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적절하다.  
 ① 재능 있는 사람들 ② 긍정적인 지도자들 ④ 영웅적인 인물들  
 ⑤ 용기 있는 투사들
- 07 글쓴이는 부정적이고 혐오스러운 말들을 긍정적인 메시지로 바꿔 학교, 지역 사회, 세계에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① '긍정적인 메시지로 변화를 이끌어라'가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② 친절한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라  
 ③ 오직 SNS를 통해서만 긍정적인 태도를 촉진하라  
 ④ 당신의 친구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을 회피하지 마라  
 ⑤ 사람들이 학교 캠페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장려하라
- 08 Greg가 자신만의 게임을 만드는 것 이외에도 자신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알츠하이머 환자인 할아버지를 위한 장치 개발에 착수했다는 내용이므로 ⑤ 'Greg는 그의 기술을 컴퓨터 게임 제작뿐만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었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Greg는 알츠하이머 질병을 위한 무선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을 배웠다.  
 ② Greg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그의 할아버지가 혼자서 걸으실 수 있도록 돕길 원했다.  
 ③ Greg는 새로운 방식으로 또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④ Greg는 할아버지에게 컴퓨터 게임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서 함께 게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 09 주어진 문장은 할아버지가 한밤중에 돌아다니시다 몇 번의 사고가 일어났다는 내용인데, 이 문장에서 In fact는 앞에 언급된 이야기를 강조하는 연결어이다.  
 ④의 바로 앞 문장에서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④이다.

- 10 Greg가 개발한 장치는 알츠하이머로 한밤중에 헤매고 다니시는 할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할아버지가 침대 밖으로 나오실 때 간병인에게 알려주는 무선 시스템이므로 ② '경고를 작동시키는'이 가장 적절하다.  
 ① 삶을 이끄는  
 ③ 영향을 미치는  
 ④ 그 효과를 강화시키는  
 ⑤ 이론을 입증하는
- 11 이 글은 Greg가 자신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알츠하이머병 때문에 한밤중에 헤매고 다니시는 할아버지를 위한 무선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내용이므로 (A)에는 utilize(이용하다)와 (B)에는 roams(돌아다니다)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Greg가 자신의 기술을 (A)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알츠하이머병 때문에 한밤중에 (B)헤매고 다니시는 할아버지를 기꺼이 도와드렸다.  
 ① 자랑하다 ..... 신경 쓰다 ② 쌓다 ..... 걷다  
 ④ 없애다 ..... 돌아다니다 ⑤ 대신하다 ..... 도전하다
- 12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기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언급했으므로 ② hopeful(희망적인)이 가장 적절하다.  
 ① 부러워하는 ③ 안도하는 ④ 화난, 짜증난 ⑤ 무관심한
- 13 이 글은 글쓴이가 동물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한 후 자신이 동물들에게 도움이 되어 자랑스러웠다는 내용이다. 빈칸에는 봉사 활동을 통해서 배운 점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하므로 ④ '사랑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나은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② 우리는 더 많은 동물원을 만들어야 한다  
 ③ 도움을 받는 것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 14 「지각동사(saw) + 목적어(my device) + 목적격 보어」 구조로 목적어인 장치(device)가 감지하는(detect) 것이므로 과거분사(detected)를 현재분사(detecting)나 동사원형(detect)으로 고쳐 써야 한다.
- 15 이 글의 how deeply ~ wandering에서 글쓴이와 가족들이 글쓴이가 만든 장치가 작동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고 신이 났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④가 알맞다.  
 ① → 얇은 필름 센서 ② → 스마트폰에서 사용 ③ → 실시간 감지  
 ⑤ → 더 많은 센서를 만들고 있는 중
- 16 글쓴이가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장치를 할아버지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이 글의 주제는 ④ '당신의 기술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의 긍정적인 영향'이다.  
 ① 당신의 가족과 의사소통을 할 필요성  
 ② 걷는 도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  
 ③ 무선 정보 체계를 잘 작동시키는 방법들  
 ⑤ 글쓴이가 세상에 그의 지식을 퍼뜨렸던 이유
- 17 (A) 늘어나고 있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때라는 맥락이므로 prevent(예방하다)가 알맞다. (encourage: 장려하다)  
 (B) 오늘날 많은 어르신들의 좋지 않은 건강, 가난, 외로움과 고군분투하고 계신다는 맥락이므로 struggle with(고군분투하다)가 적절하다. (get over: 극복하다)  
 (C) 재능을 기부하기 위해 유명인일 필요가 없다는 맥락이므로 donate(기부하다)가 적절하다. (keep: 유지하다)
- 18 세 명의 글쓴이들은 사람들에게 각각 학교 폭력 예방, 어르신 돕기, 재능 기부에 대해서 설명하며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④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라.'가 가장 적절하다.  
 ① 당신은 영어를 가르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②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함께 하자.  
 ③ 학교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의 캠페인에 참여하라.  
 ⑤ 당신이 기부를 한다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다.

- 01 (C) → (A) → (E) → (B) → (D)  
 02 Can I help you with that? [Do you need any help with that? / Can I give you a hand with that?]  
 03 small actions that we take for our family and friends in our everyday lives  
 04 Ⓐ these yellow sticky notes Ⓑ people Ⓒ words  
 05 I spent an entire weekend making positive notes  
 06 (1) Ⓐ → scolded (2) Ⓐ → official  
 07 (1) Ⓐ → What (2) Ⓒ → making (3) Ⓐ → simple (4) Ⓒ → spreading  
 08 dealing with Alzheimer's disease, suffers from  
 09 얇은 필름 센서가 부착된 작은 무선 회로를 양말 또는 신발에 심어 놓아 환자들이 침대 밖으로 나올 때 생긴 압력이 이 시스템을 작동시켜 스마트폰 앱으로 경보음을 보내게 한다.  
 10 (A) What I really wanted to tell you today  
 (B) whatever they are

- 01 안녕, 준섭아. 네 다리에 무슨 일이 있었니?  
 (C) 안녕, 민지야.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  
 (A) 그 말을 들으니 유감이크나. 많이 아팠겠구나.  
 (E) 정말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B) 왜 넘어졌니? 계단이 미끄러웠니?  
 (D) 그렇지는 않았어. 문자를 보내는 동안에 내 발에 걸려서 넘어졌어.
- 02 밑줄 친 부분은 도움을 제안하는 표현으로 Can I help you with that? [Do you need any help with that? / Can I give you a hand with that?] 등으로 바꿔 쓸 수 있다.  
 A: 어제 여기 근처에서 자동차 사고가 있었던 거 알고 있었니?  
 B: 응, 알아. 사실, 작년엔 같은 지점에서 다른 사고도 있었어.  
 A: 무서워. 그곳에서 더 이상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어.  
 B: 나도 그래. 우리가 거기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A: 아마 할 수 있을 거야. 안전한 운전 캠페인을 하는 건 어때?  
 B: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해 보자.
- 03 밑줄 친 그러한 행동은 앞에서 언급된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말하므로 small actions that we take for our family and friends in our everyday lives를 가리킨다.
- 04 ⒶⒷⒸ의 대명사 them은 앞에 나온 복수 명사를 대신 받으므로 Ⓐ는 these yellow sticky notes를, Ⓑ는 people을, Ⓒ는 words를 가리킨다.
- 05 '~하는 데 시간[돈]을 쓰다'라는 의미를 가진 「spend + 시간[돈] + 동명사」 구문을 활용하여 영작한다.
- 06 Ⓐ 영망으로 만들어서 꾸지람을 들었다는 내용으므로 praised(칭찬하다)를 scolded(꾸짖다)로 바꿔야 적절하다.  
 Ⓐ 선생님들이 그 캠페인을 공식화 하는 데 동의 하셨기 때문에 학교, 지역 사회, 세계에게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는 맥락이므로 unofficial(비공식적인)을 official(공식적인)로 바꿔야 한다.
- 07 Ⓐ 관계대명사 That 앞에 선행사가 없으므로 That을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으로 고쳐 써야 한다.  
 Ⓒ contribute to(~에 기여하다)에서 to는 전치사로 (동)명사가 뒤따르기 때문에 make를 mak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얼마나 ~할지라도'의 의미를 가진 「no matter how + 형용사」에 맞게 simpleness를 형용사 simple로 고쳐 써야 한다.  
 Ⓔ look forward to에서 to는 전치사로 (동)명사가 뒤따르기 때문에 spread를 spread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08 '왜 Greg의 할아버지는 한밤중에 헤매고 다니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헤매고 다니시는 일로 자주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
- 09 첫 문장부터 세 번째 문장까지 이 시스템의 작동 원리가 언급되어 있다.

- 10 (A) 「what + 주어 + 동사」 구조와 to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want에 유의한다.  
 (B) 복합관계사 「whatever + 주어 + 동사」 구문에 유의한다.

R 교과서 핵심 본문 다시 쓰기

- 01 You probably know of great souls who sacrificed themselves to help others and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o live in.  
 02 It may seem difficult or practically impossible for ordinary people to live up to what Dr. Schweitzer did.  
 03 But small actions that we take for our family and friends in our everyday lives can make a difference toward creating a better world.  
 04 Today we are going to listen to the stories of two teenagers who have taken such actions.  
 05 Nice to meet you all here today.  
 06 I am Annie from Ottawa.  
 07 You know what these yellow sticky notes are for and probably use them for many purposes.  
 08 I am here to tell you how I use them.  
 09 It is to encourage people, give them strength, and help them feel happy.  
 10 When I was in middle school, someone broke into my locker and used my smartphone to post hateful things on my SNS page.  
 11 It was so hurtful and difficult to overcome.  
 12 But after a lot of thinking and talking with my parents and closest friends, I concluded that although bullies use words to hurt people, I should use them to encourage others.  
 13 Once I started high school, I took action.  
 14 The idea was to spread kindness by posting notes with positive messages all over the school.  
 15 I spent an entire weekend making positive notes, such as "You're amazing!" and "You are worth more than you think!"  
 16 The following Monday I put them up around the school, and named my campaign "Positive Post-It Day."  
 17 Guess what happened next.  
 18 I was scolded for making a mess!  
 19 But do not be disappointed yet.  
 20 It did not take long before the campaign gained attention and support.  
 21 To my surprise, teachers also agreed to make it official, and friends joined me to create an SNS page for the campaign.  
 22 We are now getting support from people all over the world.  
 23 Positive and powerful words are taking the place of negative and hateful ones in our school, in our community, and in the world.  
 24 What I learned from this experience is that there is something we ordinary teenagers can do to contribute to making a better world.  
 25 No matter how simple it is, it can bring a change to our family, school, and community.  
 26 My friends and I are looking forward to spreading our positive sticky note messages over the entire world next year.  
 27 Why don't you join us?  
 28 I live in New York City.  
 29 I love playing computer games.  
 30 Who doesn't at my age?  
 31 I even learned computer programming because I wanted to make a computer game of my own!

# 04 Some Like It Cold, Some Like It Hot

- 32 But recently I found another way to use my skills, and I am excited to share it with you today.
- 33 My grandfather is dealing with Alzheimer's disease.
- 34 As some of you might know, Alzheimer's patients often suffer from wandering.
- 35 Well, my grandfather sometimes wanders without knowing where he is going.
- 36 Wandering around at night is especially dangerous.
- 37 In fact, my grandfather had several accidents because his caregiver failed to wake up when he started wandering in the middle of the night.
- 38 I really wanted to help my grandfather.
- 39 So I set out to design a wireless system that triggers an alert on a caregiver's smartphone when a patient steps out of bed.
- 40 To make this system work, I made a small wireless circuit with a thin film sensor attached to it.
- 41 This circuit is planted in a sock or a shoe.
- 42 When the patient steps out of bed, the pressure causes the system to send an alert to a smartphone application that I also programmed.
- 43 To my delight, it worked!
- 44 I will never forget how deeply moved and excited my family and I were when we first saw my device detecting my grandfather's wandering.
- 45 At that moment, I was struck by what I could do for people, using my knowledge and skills.
- 46 Now I am making more sensors to donate to nursing homes for Alzheimer's patients.
- 47 What I really wanted to tell you today is that your knowledge and skills, whatever they are, can be used to help others.
- 48 It is exciting to imagine what would happen if all of us were to join in to help others with what we can and like to do best.
- 49 I do not know exactly what such a world would look like, but I am certain it would be a much better world.
- 50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 W 교과서 핵심 어휘 확인 문제

p.066

- 01 ③                    02 (1) chill (2) tender (3) cure (4) melt (5) investigate
- 03 ③                    04 ③

- 01 ③은 '새롭게 하다'라는 뜻의 유의어 관계이고, 나머지는 모두 반의어 관계이다.  
 ① 열다 : 놓치다   ② 편안한 : 불편한   ④ 균형을 맞추다 : 균형을 깨뜨리다  
 ⑤ 완전한 : 불완전한
- 02 (1) chill(식히다): 식히거나 차갑게 만들다  
 (2) tender(부드러운): 자르거나 씹기 쉬운  
 (3) cure(치료): 병이나 질병을 위한 의학적 치료  
 (4) melt(녹이다): 고체 상태의 어떤 것을 부드러운 또는 액체 상태로 바꾸다  
 (5) investigate(조사하다): 범죄, 문제 등 특히 진실을 밝히기 위해 주의 깊게 조사하다
- 03 ③의 drop into는 '~에 들르다'라는 뜻으로 빈칸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다.  
 ㉠ 나는 당신이 그 프로젝트에 전념하길 바란다. (commit to: ~에 전념하다)  
 ㉡ 이 문제는 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make sense: 이해가 되다)  
 ㉢ 모든 아이디어들을 시도해 보는 것은 가능하다. (try out: ~을 시도하다)  
 ㉣ 그는 페퍼로니와 올리브가 올려진 피자를 좋아한다. (topped with:~이 올려진)
- 04 <보기>와 ④의 taste는 '맛'이라는 뜻의 명사로 쓰였다.  
 나는 내가 삼계탕 먹는 것을 시도했을 때 그 맛이 정말 좋았다.  
 ② 나는 감기 때문에 이것의 맛을 느낄 수 없다. (㉠ 맛을 보다)  
 ③ 우리는 두리안 과일을 맛 봤을 때 충격 받았다. (㉡ 맛을 보다)  
 ④ 우리는 탄산음료와 함께하는 프라이드치킨의 맛을 좋아한다.  
 ⑤ 그 팀은 처음으로 승리의 맛을 경험했다. (㉢ 맛(경험))

## C 교과서 핵심 대화

p.067-068

- 01 ①                    02 Have you heard about

- 01 밑줄 친 부분과 ②③④⑤는 음식을 권하는 표현이고, ①은 의문사 when을 포함하여 시간을 묻는 표현이다.
- 02 여자의 질문에 남자가 '아니, 그게 무엇이니?'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 빈칸에는 현재완료를 이용한 질문으로 '~해 본 적이 있니?'라는 뜻의 Have you heard about이 적절하다.

## C 교과서 기타 대화

p.069

- 01 T                    02 F

- 01 남자는 여자의 음식 주문을 받고 있는 중이다.
- 02 그 식당은 오직 한국인 입맛에 맞는 전통 한국 음식을 제공한다.  
 (→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디자인된 맛있는 한국 음식들을 제공함.)

## C 교과서 핵심 대화 확인 문제

p.070

- 01 ④                    02 ⑤                    03 ③

- 01 배가 고프다는 소년에게 음식을 권하는 표현이 적절하다. ①,②,③,⑤는 '좀 먹어 볼래?'의 뜻인 반면, ④는 '왜 그것을 좋아하지 않니?'의 뜻으로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다.
- 02 빈칸 다음에 '응, 많이. 친구들이 한국의 유명한 장소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줬어.'라는 답변이 나오므로 빈칸에는 ⑤ 'Have you heard much about Korea? (한국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니?)'가 가장 적절하다.
- ①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② 한국 여행이 어땠니?  
③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니?  
④ 한국어를 아니?
- 03 ③ A의 '중국에 대해 많이 들어 봤나?'라는 질문에 B가 '네. 저는 곧 뉴욕에 갈 거예요.'라는 답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 ① A: 피자 드실래요?  
B: 물론이죠.  
② A: 좀 드실래요?  
B: 아니요, 저는 이미 먹었어요. 고마워요.  
④ A: 한의학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B: 네, 들어봤어요.  
⑤ A: 누군가 당신에게 뉴스 속보를 말해줬나요?  
B: 아니요, 못 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G** 교과서 핵심 | **문법**

p.071~072

- 01 With our bags packed  
02 She has an idea of building a community center in this town.

- 01 「with + 명사 + 분사」로 가방(our bags)은 사람에 의해 꾸러지는 것이므로 과거 분사를 이용하여 With our bags packed라고 써야 한다.
- 02 동격의 of에 의해 an idea와 of 뒤에 오는 동명사구는 동격 관계이다.

**G** 교과서 핵심 | **문법 확인 문제 1**

p.073

- 01 (1) 그 소년들의 가방들을 차에 둔 채로 그들은 떠났다.  
(2) 내 다리를 끈 채로 나는 조용히 명상했다.  
(3)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은 채로 우리는 애국가를 불렀다.  
(4) 해가 지면서 우리는 점점 더 피곤하다.
- 02 (1) carry → carried (2) closing → closed  
(3) jumped → jumping (4) turning → turned
- 03 (1) With the window broken  
(2) With his heart beating fast  
(3) With her hair blowing in the wind

- 01 (1)(3)는 「with + 명사 + 전치사구」, (2)는 「with + 명사 + 과거분사」, (4)는 「with + 명사 + 현재분사」이며 '~가 ...한 채로[하면서]'라고 해석한다. (meditate: 명상하다, anthem: (국가, 단체 등) 노래)
- 02 (1)(2)(4)는 명사와 분사와의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과거분사를 쓰고, (3)는 강아지들이 뛰어다니는 것이므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기 때문에 현재분사로 써야 한다.
- (1) 그는 많은 지리학 책을 든 채로 집에 돌아왔다.  
(2) 그 남자는 눈을 반쯤 감은 채로 커피를 마시고 있다.  
(3) 강아지들이 주변을 뛰어다니는 채로 그들은 소풍을 즐겼다.  
(4) 손전등을 켜 채로 그는 숲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 03 (1) 「with + 명사 + 분사」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과거분사 broken으로 바꿔 써야 한다.  
(2) 「with + 명사 + 분사」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현재분사 beating으로 바꿔 써야 한다.

- (3) 「with + 명사 + 분사」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현재분사 blowing으로 바꿔 써야 한다.

**G** 교과서 핵심 | **문법 확인 문제 2**

p.074

- 01 (1) 그는 선생님이 되겠다는 미래의 꿈을 갖고 있다.  
(2) 그 수업에 등록할 기회는 흔하지 않다.  
(3)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는 생각을 좋아한다.  
(4) 아이들을 돌보는 책임은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
- 02 (1) read → reading (2) possible → possibility  
(3) torn → tearing (4) being raised → raising
- 03 (1) The fact that he bought a new car made his brother angry.  
(2) The idea that she got some encouraging comment was not true.  
(3) The possibility that he climbed to the peak of Mt. Everest was low.

- 01 of는 앞에 오는 추상명사와 뒤에 오는 동명사구가 동격 관계이며 '~하는, ~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 02 (1) of는 전치사로 바로 뒤에 동사원형이 아니라 동명사가 와야 하므로 read를 reading으로 바꿔 써야 한다.  
그녀는 일 년에 백 권의 책을 읽는다는 생각을 좋아한다.  
(2) the는 정관사로 명사가 뒤따르며, 동격의 of 앞에는 추상명사가 오므로 형용사 possible을 명사 possibility로 바꿔 써야 한다.  
그는 그 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을 믿는다.  
(3) of 다음에는 동명사가 오고, tear(~을 찢다)는 타동사로 목적어가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과거분사 torn을 현재분사 tearing으로 바꿔 써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예술 작품을 찢었다는 사실에 충격 받았다.  
(4) raise는 타동사로 목적어가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수동형 being raised를 능동형 raising으로 바꿔 써야 한다.  
가족은 그들의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려는 목표가 있다.
- 03 동격의 of는 동격의 접속사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으며, that 다음에는 주어와 동사가 포함된 완전한 문장이 온다.  
(1) 그가 새 차를 샀다는 사실이 그의 남동생을 화나게 만들었다.  
(2) 그녀가 격려의 논평을 받았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었다.  
(3) 그가 에베레스트 산 정상까지 등반했을 가능성은 낮았다.

**R** 교과서 기타 | **지문**

p.079

- 01 F      02 T

- 01 순두부찌개의 가장 흔한 형태에는 소고기가 들어있다.  
(→ 해산물(seafood)이 들어있다.)
- 02 글쓰이는 Sun Chicken House에 대해 좋은 후기를 작성했다.

**R** 교과서 핵심 | **본문 다지기**

p.080~081

- |  |                            |                    |            |
|--|----------------------------|--------------------|------------|
| 01 in addition to                          | 02 형용사적                    | 03 relaxing        | 04 우연히 ~하다 |
| 05 what                                    | 06 out of balance          |                    |            |
| 07 행동보다 말이 쉬운                              | 08 why                     | 09 refreshing      |            |
| 10 however                                 | 11 being topped            | 12 the real taste  | 13 계속      |
| 14 proverb                                 | 15 helps                   | 16 and it          | 17 헤어지다    |
| 18 progressing                             | 19 attained                | 20 eating          | 21 ~에 전념하다 |
| 22 a restaurant                            | 23 which[that] was covered |                    |            |
| 24 With a delight only matched by children | 25 stuffed                 |                    |            |
| 26 이해가 되다                                  | 27 which were used         | 28 sadness         |            |
| 29 looking                                 | 30 As I, didn't know       | 31 Needless to say |            |

32 with      33 dish      34 There we were  
 35 be seen    36 도치      37 something really hot  
 38 로스앤젤레스의 늦가을처럼 시원하고 상쾌하게 느껴졌다  
 39 to enjoy    40 동격

**T** 내신 1등급 대비 1회

p.082~093

01 ④	02 ②	03 (s)tuff	04 ②	05 ①	06 ④
07 ingredient	08 ③	09 ⑤			
10 Have you heard much about Korea?			11 ⑤		12 ⑤
13 ②	14 not only Koreans but also foreigners				15 ③
16 roar → roaring	17 ③	18 ③		19 of studying	
20 ③	21 ④	22 ③			
23 with his smartphone turned off	24 ③				
25 (1) spilled (2) swaying					
26 I don't agree the idea of selling fast food in the school.			27 ④		
28 (A) besides (B) freshen (C) balanced			29 ④		30 ④
31 ⑤	32 ③	33 ②			
34 if its cold noodles aren't topped with hot spices					35 ④
36 The idea of eating <i>samgyetang</i> sounded good	37 ⑤				38 ⑤
39 ②	40 As I still didn't know	41 ⑤		42 ③	
43 (B) → (C) → (A)	44 ②	45 ④			

- 01 ①②③⑤는 유익어 관계이고, ④는 '편한 : 불편한'이란 뜻으로 반의어 관계이다.  
 ① 매운 ② 요리 ③ 다양한 ⑤ 조사하다
- 02 ② '부엌에서 사용하는 흔한 매운 양념'은 red pepper powder(고춧가루)의 영  
 영풀이로 herb(약초)의 영영풀이로 적절하지 않다.  
 ① 방울: 작은 둥그런 모양의 액체  
 ③ 균형을 맞추다: 몇 개의 것들에 동일한 양의 중요성을 두다  
 ④ 이기다: 누군가를 게임이나 경쟁적인 상황에서 패배시키다  
 ⑤ 주문하다: 특히 레스토랑이나 가게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지거나 배달되도록  
 요구하다  
 ⑥ 균형을 맞추다: 몇 개의 것들에 동일한 양의 중요성을 두다
- 03 첫 번째 빈칸에서 stuff는 '물건'이라는 뜻의 명사로, 두 번째 빈칸에서는 '채우  
 다'라는 뜻의 동사로 쓰였다.  
 • 당신은 그가 어디에 그의 물건을 뒀는지 알고 있나요? (㉠ 물건)  
 • 나는 박스에 모든 것을 채우고 계단을 내려갔다. (㉡ 채우다)
- 04 ② 'Bob을 방문하기 위해 병원에 들르는 것이 어때?'에서 drop into는 '~에 들르  
 다'라는 뜻이다.  
 ① 그것이 그가 그것을 항상 그런 식으로 한 이유이다.  
 ③ 그는 이혼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④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연휴 동안 너무 많은 돈을 썼다.  
 ⑤ 만약 당신이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가진다면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라.
- 05 separate는 '헤어지다'라는 뜻으로 ① part와 바꿔 쓸 수 있다.  
 그녀는 결혼 생활 10년 만에 남편과 헤어졌다.  
 ② 그리워하다 ③ 부양하다 ④ 진행하다 ⑤ 협동하다
- 06 <보기>와 ④의 treat는 '요리'라는 뜻의 명사로 쓰였다.  
 우리는 여기서 맛있는 요리를 우리 스스로에게 줘야 한다.  
 ① 저녁 식사 후에 내가 당신에게 아이스크림을 대접할게요. (㉠ 대접하다)  
 ② 발리에서 노을을 보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이다. (㉡ 즐거움)  
 ③ 오늘날 학생들에게 피자를 대접하는 게 어떨까요? (㉢ 대접하다)  
 ④ 이 스테이크는 와인이 필요한 요리이다. (㉣ 요리)  
 ⑤ 너의 독감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약을 복용하자. (㉤ 치료하다)
- 07 ingredient는 '(음식의) 재료'라는 뜻이다. (and so on: 기타 등등, ...등[등등]  
 (et cetera[etc.]))
- 08 밑줄 친 부분은 '좀 먹어 볼래?'라는 뜻으로 ①②④⑤와 같이 음식을 권유하는 표

- 현인 반면, ③은 '여기서 먹는 것이 내키지 않니?'라는 뜻으로 밑줄 친 부분과 바  
 꺾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① 좀 먹는 것이 어때?  
 ② 좀 먹는 것이 어때?  
 ④ 좀 먹길 원하니?  
 ⑤ 좀 먹지 않을래?
- 09 빈칸에 대한 여자의 답변이 '고맙지만 나는 지금 약간 배가 불러.'이므로 빈칸에  
 는 음식을 권유하는 표현이 알맞다. 따라서 빈칸에는 ⑤ '소고기나 생선을 좀 먹  
 어볼래?'와 같은 음식을 권유하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  
 ① 그건 나의 엄마의 요리법이야.  
 ② 모든 음식을 내가 만들었어.  
 ③ 그 음식을 포장해 줄 수 있니?  
 ④ 어떤 샐러드로 시작하고 싶니?
- 10 '~에 대해 들어 본 적 있니?'라는 뜻의 표현 Have you heard about ~?을 이용  
 한다.  
 11 ⑤에서 Steve가 한국의 유명한 여러 장소를 방문했지만 혼자였는지는 알 수 없다.  
 ① Steve는 갈비와 같은 많은 한국 음식을 시도했다.  
 ② Steve는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 갈 예정이다.  
 ③ Steve는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해 많이 들었다.  
 ④ Steve는 자신이 방문했던 장소들이 멋지다고 느꼈다.
- 12 음료수의 얼음의 양은 선택할 수 있지만 ⑥의 음료수 리필이 가능한지는 언급되  
 지 않았다.
- 13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내용이므로 ② '서빙하는 사람 - 손님' 관계가 가장 적절  
 하다.  
 ① 교사 - 학생 ③ 고객 센터 - 방문자 ④ 고용인 - 직원 ⑤ 배달원 - 손님
- 14 밑줄 친 B as well as A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라는 뜻으로 Not  
 only A but also B로 바꿔 쓸 수 있다.
- 15 그들 중 한 명이 새로 문을 연 한국 식당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① 그들은 한국 음식을 먹는 데 동의했다.  
 ② 그 한국 식당은 무언가 특별한 게 있다.  
 ④ 그 식당은 훌륭한 한식 메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⑤ 그 식당 요리들은 전 세계인을 위한 것이다.
- 16 「with + 명사 + 분사」 구문으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roar를 현재  
 분사 roar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그의 근처에 으르렁거리는 호랑이가 있어서 그는 가만히 있었다.
- 17 a new theory와 빈칸 뒤의 동명사구가 동격 관계이므로 동격의 of가 빈칸에 들  
 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그녀는 과학 분야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새로운 이론을 설명했다.
- 18 「with + 명사 + 분사」는 문장의 주절과 함께 일어나는 일을 나타낼 때 사용하므  
 로 주절의 동사와 시제를 일치시켜야 한다. 따라서 ③은 동사 does를 과거형 did  
 로 바꿔 써야 한다.  
 ① 그녀가 팔짱을 낀 채로 그를 야단쳤다.  
 ② 빵을 구우면서 우리는 채소 수프를 요리했다.  
 ③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모든 팀은 최선을 다해야 했다.  
 ④ 그의 발이 진흙에 빠져서 그는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⑤ 왕이 전투에서 사망하면서 우리는 말을 잃었다.
- 19 동격의 접속사 that은 동격의 of로 바꿔 쓸 수 있으므로 빈칸에는 of studying이  
 적절하다.  
 그녀는 장학금을 받고 외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가졌다.
- 20 동격의 of 구문이나 동격 that절을 이용한다. ③은 명사 the idea와 of 뒤에 오는  
 동명사(구)가 동격 관계를 이루도록 알맞게 쓰였다. 반면 ④는 동격의 that 다음  
 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하는 데 동명사(구)가 왔으므로 that he applied ~로 고  
 쳐 써야 한다.
- 21 ㉠㉡㉢㉣은 어법상 옳은 문장이고, ㉤의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turning을 과거분사 turned로 바꿔야 한다.  
 ㉠ TV를 켜 놓은 채로 나는 잠이 들었다.  
 ㉤ 목소리가 울려 퍼져서 우리는 놀랐다.

- ㉔ 그 축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시작되면서 마무리 됐다.
- ㉕ 가이드가 길을 안내해줘서 그 여행은 매우 안전하다.
- ㉖ Judy는 인형에게 한복을 입힌 채로 집에 가는 중이었다.
- 22 동격의 of 다음 동명사가 와야 하는 데 동사원형 use가 왔으므로 use를 동명사 using으로 바꿔 써야 한다. ㉔에서 that은 앞의 hope와 동격을 이루는 that으로 that 다음 완전한 문장이 왔으므로 적절하다.
- ㉑ 그는 몇 년 전의 뉴욕 도시를 기억했다.
- ㉒ 그녀는 하루에 세 번 채소를 먹는 내용의 뉴스에 대해 설명했다.
- ㉓ 우리 반 친구들은 재활용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것이다.
- ㉔ 우리가 곧 실종된 아이를 찾을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 ㉕ 나는 이번 주말에 James의 콘서트에 갈 기회를 놓칠 수 없다.
- 23 「with + 명사 + 분사」로 스마트폰은 그에 의해서 꺼지는 것이므로 과거분사를 이용하여 with his smartphone turned off라고 써야 한다.
- 24 The idea와 빈칸 (A) 뒤에 오는 동명사구가 동격 관계이므로 (A)에는 동격의 of, 명사 a dream과 빈칸 뒤에 오는 절이 동격이므로 (B)에는 동격의 접속사 that이 적절하다.
- 다른 나라를 여행한다는 생각은 좋게 들려서 나는 유럽에 가서 사는 꿈을 갖고 있다.
- 25 (1) 「with + 명사 + 분사」 구문에서 명사(the milk)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spilled가 알맞다.
- (2) 「with + 명사 + 분사」 구문에서 명사(my body)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swaying이 알맞다.
- (1) 우유가 엷질러진 채로 올려뒀자 소용없다.
- (2) 나는 내 몸을 흔들면서 장기 자량을 위해 춤추는 연습을 했다.
- 26 명사 the idea와 of 뒤에 오는 동명사구가 동격임에 유의한다.
- 27 따라서 어법상 옳은 문장은 ㉔㉕이다. ㉔은 문이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부사 (openly)가 아닌 형용사 open으로 고쳐야 한다.
- ㉕의 「with + 명사 + 분사」 구문에서 명사(its tail)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raising을 과거분사 raised로 고쳐야 한다.
- ㉔은 「with + 명사 + 분사」 구문에서 명사(his face)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looked를 현재분사 looking으로 고쳐야 한다.
- ㉕ 문을 열어 놓은 채로, 우리는 우리 집을 청소했다.
- ㉖ 나의 아버지는 선글라스를 낀 채로 달리는 중이다.
- ㉗ Tom의 개는 꼬리를 세우고 낯선 사람을 보고 짖었다.
- ㉘ 그는 겁먹은 얼굴을 하고서 산 닭지를 먹기로 결정했다.
- ㉙ 그녀는 그녀의 머리를 Kevin의 어깨에 기댄 채 벤치에 앉아 있는 중이다.
- 28 (A) '긴 낮 시간과 덥고 잠을 못 이루는 밤 이외에'라는 맥락이므로 besides(~이외에)가 적절하다. (beside: ~옆에)
- (B) '나를 신선하게 해줄'이라는 맥락이므로 freshen(신선하게 하다)이 적절하다. (suppress: 억압하다)
- (C) '우리는 몸의 냉기와 온기의 정도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하다'는 맥락이므로 balanced(균형에 맞는)가 적절하다. (unbalanced: 균형이 맞지 않는)
- 29 밑줄 친 what과 ㉔의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 쓰였다. ㉑㉒은 의문사 what, ㉓는 의문형용사 what, ㉔는 감탄사 what이다.
- ㉑ 무슨 일 있었니?
- ㉒ 너는 어떤 색깔을 좋아하니?
- ㉓ 내 자전거가 어떻게 된 거지?
- ㉔ 그것이 네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니?
- ㉕ 너는 훌륭한 유년시절을 보냈구나!
- 30 한국 문화와 철학에서 뜨거운 날에 차가운 음식을 먹는 것은 음과 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음과 양의 균형이 깨졌을 때, 우리의 몸은 조율이 필요하다는 맥락이므로 빈칸에는 ㉔ '훌륭한 조율이 필요한'이 가장 적절하다.
- ㉑ 약간 통제할 수 없는
- ㉒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
- ㉓ 완전히 눈에 띄지 않게 (under the radar: 눈에 띄지 않게, 몰래)
- ㉔ 긍정적인 에너지로 구성된

- 31 더운 날에 차가운 면과 같은 차가운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 몸의 에너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 언급했으므로 ㉕ '더운 날에 차가운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 균형이 맞게 도와준다.'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 ㉑ 차가운 면은 당신이 잠을 잘 자도록 도와준다.
- ㉒ 글쓴이와 김 씨는 전에 만난 적이 있다.
- ㉓ 더운 날에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다.
- ㉔ 차가운 면은 여름에만 건강에 좋다.
- 32 "이열치열"이라는 옛 속담처럼 여름에 매운 양념을 즐기는 것이 사람들이 시원하게 지내도록 도와주며 한약재가 이를 뒷받침 한다고 언급한다. 그러므로 특정 약초와 양념이 몸을 활리게 하며 몸을 식혀준다는 맥락이 자연스럽게 때문에 heats(열을 내다)를 cools(식혀준다)로 바꿔 써야 한다.
- 33 (A) 빈칸 앞에서 냉면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뒤에서는 냉면은 차가운 면에 매운 양념이 없어지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however(그러나)가 가장 적절하다.
- (B) 빈칸 앞에서 물냉면과 비빔냉면의 진정한 맛은 각각 겨자 소스와 고추장 소스가 곁들여질 때라고 설명하고 있고, 뒤에서는 여름의 무더위를 이기는 것은 면의 차가움뿐만 아니라 고추의 열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Thus(따라서, 그래서)가 적절하다.
- ㉑ 하지만 ..... 또한
- ㉓ 그렇지 않으면 ..... 마찬가지로
- ㉔ 그러므로 ..... 그러나
- ㉕ 게다가 ..... 그러므로
- 34 without은 '~이 없이'라는 의미로, If ~ not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 35 이 글은 한국인들이 여름을 이겨 내기 위해 먹는 음식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㉔ '한국의 여름에 최고의 음식은 무엇인가?'가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 ㉑ 냉면: 두 가지 형태의 소스
- ㉒ 매 계절마다 매운 양념과 뜨거운 음식
- ㉓ 지구 온난화: 서울의 변화하는 날씨
- ㉔ 다른 나라에서 얻은 문화적 지혜
- 36 동격의 of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아니라 동명사가 와야 하므로 eat를 eat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sound + 형용사: ~하게 들리다
- 37 글쓴이가 삼계탕을 먹고 진짜 "이열치열"의 경험은 한여름 삼계탕에서 온다는 김 씨의 말과 지혜를 이해했다는 맥락이므로 trick(속임수)을 wisdom(지혜)으로 고쳐야 한다.
- 38 진한 육수가 아닌 맑은 육수(clear broth)라고 언급되었다.
- 39 글쓴이가 삼계탕을 먹고 난 후 삼계탕에 사용된 재료가 여름철 우울함을 날려버릴 것이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글쓴이의 심정은 ㉒ '기쁜'이 가장 적절하다.
- ㉑ 우울한 ㉓ 안도한 ㉔ 만족스럽지 못한 ㉕ 동정적인
- 40 분사구문은 부사절에서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여 만든 형태이므로 부사절로 다시 바꾸면 As I still didn't know가 알맞다.
- 41 글쓴이가 삼계탕을 먹고 식당을 둘러보니 땀 흘리며 먹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이고 불행한 얼굴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맥락이므로 happy(행복한)를 unhappy(불행한)로 고쳐 써야 한다.
- 42 글쓴이는 삼계탕을 국물 한 방울 남김없이 먹고, 테이블에 놓인 김치와 고추 그리고 오이를 많이 먹었다는 것으로 보아 말할 필요도 없이 빼 놓는 통을 빈 닭 뼈들로 채웠다는 맥락이므로 빈칸에는 ㉓ '말할 필요도 없이'가 가장 적절하다.
- ㉑ 말하자면 ㉒ 우선 ㉔ 엄격하게 말하자면 ㉕ 설상가상으로
- 43 주어진 글은 수프를 먹고 난 후 신선한 공기의 숨결을 느꼈다는 내용으로 (B)의 that feeling이 신선함과 연결된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의 여름이 로스앤젤레스의 늦가을처럼 시원하게 느껴졌다는 (C)가 오고, 마지막으로 여름밤을 즐기기 위해 주변에 머물렀다는 (A)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 44 the chance와 of 이하가 동격 관계이며, of는 전치사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므로 enjoy를 enjoying으로 바꿔 써야 한다.
- 45 글쓴이가 뜨거운 음식을 먹고 난 후 시원함을 느끼고 이열치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는 내용이므로 ㉔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 ㉑ 삼계탕을 먹는 동안 글쓴이는 신선함을 느꼈다.
- ㉒ 글쓴이는 뜨거운 여름날을 참을 수 없었다.

- ③ Damil과 글쓰이는 식사 후에 바로 집으로 갔다.
- ④ 글쓰이는 “이열치열”이란 표현을 이해했다.
- ⑤ 글쓰이는 이열치열을 할 유일한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

**T** **내신 1등급 대비 2회** p.094~105

01 ⑤	02 ④	03 specializes in	04 ④	05 ④
06 ④	07 (T)hat's why	08 Would you like	09 ④	
10 (1) ⑥ (2) ① (3) ③	11 ⑤	12 (D) → (B) → (A) → (C)	13 ①	
14 ③	15 delicious Korean dishes that are designed to suit the tastes of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16 fired → being fired	17 ②	18 ②	19 ②	
20 ④, ⑤	21 while[as] clouds covered[were covering] the sky			
22 There is a possibility of her finding an unknown material.	23 ②			
24 ④	25 (1) brushed (2) leaning	26 ①		
27 He managed to finish the project with his birthday party delayed.				
28 I found the perfect thing to freshen me up and met the perfect person to help me out				
29 ④	30 easier said than done	31 ④	32 ②	
33 The real taste	34 ⑤	35 ③		
36 After researching nearby restaurants, I decided on one specializing in this soup.				
37 (1) a whole young chicken stuffed with ginseng, garlic, and rice (2) summer blues away				
38 ③	39 ①	40 while[as] the summer was progressing		
41 ④	42 ①	43 ⑤	44 ⑤	45 ②

- 01 ⑤ tender는 ‘부드러운(= soft)’의 의미로 ①~④의 영영풀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① 어떤 것의 양이나 수준: ③ degree(정도)
  - ② 무언가를 얻는 데 도달하거나 성공하다: ④ attain(얻다, 획득하다)
  - ③ 물이 끓을 때 나오는 뜨거운 가스: ① steam(증기)
  - ④ 보통 채소나 쌀이 들어간 맑은 수프: ② broth(국; 묽은 수프)
- 02 cure는 ‘치료(법)’라는 뜻을 가진 명사로 treatment와 바꿔 쓸 수 있다. 우물함울 위한 치료법은 친구를 만나고 운동하는 것이다.
  - ① 측면 ② 갈망 ③ 본질 ⑤ 단점
- 03 ‘~을 전문으로 하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은 specialize in으로, 주격 관계대명사 who의 선행사가 one person이므로 단수동사(specializes)로 써야 한다.
- 04 첫 번째 빈칸에서는 ‘치다, 때리다’라는 뜻을, 두 번째 빈칸에서는 ‘이기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beat가 가장 적절하다.
  - ① 허락하다 ② 놓다 ③ 배치하다 ⑤ 그만두다
  - 나는 드림을 칠 때 기분이 좋아진다.
  - 나는 탁구 대회에서 나의 제일 친한 친구인 Kathy를 이겼다.
- 05 ‘음식에 특별한 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식물에서 추출한 물질’을 나타내는 단어는 spice(양념)가 가장 적절하다.
  - ① 요리 ② (화학) 산 ③ 맛 ⑤ 소금
- 06 ④ ‘나는 6개월 전에 폐업해서 나의 식당에 둘러라.’는 문장은 문맥상 자연스럽게 않으므로 쓰임이 적절하지 않다.
  - ① 그 케이크에는 매우 달콤한 딸기가 올려져 있었다.
  - ② 내일 어떤 컴퓨터 모니터를 선택할 거니?
  - ③ 많은 사람들은 날씨가 더 추워지면서 전기장판을 필요로 한다.
  - ⑤ 배우로서, 나는 가능한 많은 역할을 시도해보고 싶다.
- 07 지난 두 달 동안 바빠서 이번 달 말에 휴가를 떠난다는 뜻으로 뒤에 결과가 나오는 표현인 That's why(그것이 바로 ~한 이유이다)가 적절하다.
- 08 음식을 권할 때 쓰는 표현 Would you like가 적절하다.

- 09 소고기나 생선을 먹어보라는 권유에 ④ ‘하지만 그것은 내가 먹어봤던 것 중 최고의 고기였어’라는 대답은 적절하지 않다.
  - ① 하지만 나는 이미 배가 불러
  - ② 하지만 나는 지금 약간 배가 불러
  - ③ 하지만 나는 소고기와 생선을 좋아하지 않아
  - ⑤ 하지만 나는 이번에는 채소를 먹고 싶어
- 10 (1) 빈칸 다음에 이어지는 답변이 ‘응 많이. 내 친구들이 한국의 유명한 장소에 대해 많이 얘기해 줬어.’이므로 ⑥ ‘한국에 대해 많이 들어 본 적 있니?’가 질문으로 알맞다.
  - (2) 빈칸 다음에 이어지는 답변이 ‘경주와 설악산, 제주도도 가 봤어.’로 장소와 관련된 질문인 ⑥ ‘그리고 한국에서 어디에 가 봤니?’가 적절하다.
  - (3) 빈칸 다음에 이어지는 답변이 ‘지금까지 나는 불고기와 비빔밥 그리고 갈비를 먹어 봤어.’로 음식과 관련된 질문인 ③ ‘지금까지 어떤 한국 음식들을 먹어 봤니?’가 알맞다.
- 11 ① Steve가 얼마나 많은 곳을 방문했는가?
  - ② Steve가 얼마나 많은 한국 음식을 먹어 봤는가?
  - ③ Steve는 이전에 한국 음식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 ④ 그들은 조만간 무엇을 할 예정인가?
  - ⑤의 ‘Steve의 친구들이 언급했던 장소들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은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없다.
- 12 주문하겠냐고 묻는 남자의 질문에 주문 사항을 언급하는 (D)가 이어지고, 바로 다음에 밥 또는 감자인지에 관한 추가 주문 사항에 관한 질문인 (B)와 그에 대한 답변 (A)로 이어진다. 그리고 (C)의 음료 질문이 이어지고 얼음이 가득한 아이스티를 원한다는 여자의 답변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 13 ①의 ‘물론이죠, 좀 더 주세요.’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음식 이름을 말하며 더 먹겠느냐는 권유에 대한 답변으로, 빈칸에 대한 답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 ② 잠시 생각해 볼게요.
  - ③ 괜찮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 ④ 아니요, 지금은 그게 다예요, 고마워요.
  - ⑤ 아니요, 저는 지금 괜찮아요. 나중에요.
- 14 ‘Have you heard about ~?’에 대한 답변은 Yes, I have. 또는 No, I haven't.로 한다. 또한 대화의 흐름상 한국 식당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하므로 ③의 No, I haven't.가 가장 적절하다.
  - ① 응, 나는 그렇게 할 거야.
  - ② 응, 우리는 할 수 있어.
  - ④ 아니, 아마도 나중에.
  - ⑤ 아니 괜찮아, 고마워.
- 15 주격 관계대명사 that과 선행사 delicious Korean dishes에 유의한다.
- 16 his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이고 동격의 of 다음에는 동명사가 나와야 하는 데, his와 fire(해고하다)의 관계는 수동이므로 fired를 being fired로 고쳐야 한다. 그가 지각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당할 가능성이 그를 일찍 일어나게 만들었다.
- 17 「with + 명사 + 분사」 구문에서 명사(my eyes)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과거분사 fixed가 적절하다. 나는 눈을 천장에 고정된 채로 소파에 누워 있었다.
- 18 동격의 of 앞에는 추상명사가 오고, 뒤에는 동명사구가 온다. ②의 첫 번째 문장은 ‘우리가 지구를 돌볼 책임이 있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문장은 ‘우리가 지구를 돌보지 않을 것이라는 책임이 있다.’라는 뜻이므로 의미가 서로 다르다.
  - ① 그녀는 그 대회에서 승자가 되는 것을 꿈꾼다.
  - ③ 그들은 전통을 따르는 옛 개념에 도전했다.
  - ④ 그가 이번 단계에서는 하던 것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 ⑤ 아이들이 창의적일 수 있게 돕는다는 생각이 장려되어야 한다.
- 19 어법상 옳은 문장은 ②③이다. ⑥의 ‘신발을 신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는 on이 알맞다. ②③은 「with + 명사 + 분사」 구문에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breaking을 broken으로, crossing을 crossed로 바꿔 써야 한다.
  - ② 나는 TV를 켜놓은 채로 잠들었다.
  - ⑥ Mike는 그의 새 신발을 신은 채로 달리고 있다.

- ㉔ 그녀는 눈을 감은 채로 케이 팝을 듣고 있는 중이다.  
 ㉕ 그 흰 새는 다리가 부러진 채로 날아갔다.  
 ㉖ 다리를 끈 채로 의자에 앉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20 ㉔ 명사 the possibility와 of 다음의 동명사구가 동격을 이루며,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 my로 쓰고 선택되는 것이므로 동명사의 수동형(being chosen)을 쓴다. ㉕ 동격의 of는 동격의 접속사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고, 선택되는 것이므로 동사의 수동(be chosen) 형태가 쓰이는 것에 유의한다.
- 21 「with + 명사 + 분사」는 문장의 주절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이를 부사절로 바꾸면 「while(as) + 주어 + 동사」로 바꿔 쓸 수 있다. 구름이 하늘을 덮은 어두운 날씨였다.
- 22 명사 a possibility와 She can find an unknown material.은 동격이므로 of를 이용하여 동명사구로 연결한다.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She의 소유격인 her로 바꿔 쓴다. 그녀가 알려지지 않은 물질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 23 「with + 명사 + 분사」는 주절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나타낼 때 쓰는 구문으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㉔ with the car parked가 알맞다. 그들은 자동차를 주차시켜 놓은 채로 자동차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다.
- 24 ㉔ 「그들은 플라스틱 빨대를 생산하지 않는 법안을 제안했다.」에서 the bill과 동명사구 not producing plastic straws는 동격을 이루므로 that을 of로 고쳐 써야 한다. (straw: 빨대)  
 ㉑ 그는 화성에 사는 가능성을 상상했다.  
 ㉒ 나는 언젠가는 백두산을 오르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㉓ 그녀는 모든 나라들이 평화롭기를 꿈꾼다.  
 ㉔ Elizabeth는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파는 새로운 생각을 제안했다.
- 25 (1) 「with + 명사 + 분사」 구문에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과거분사 brushed가 적절하다. 그녀는 항상 아침에 양치질을 하는 채로 TV를 본다.  
 (2) 「with + 명사 + 분사」 구문에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현재분사 leaning이 적절하다. 그 남자들은 숲에서 나무에 기댄 채로 서 있었다.
- 26 ㉔ of the new way와 동명사구 observing atoms in the universe가 동격을 이루므로 that을 of로 고쳐야 한다.  
 ㉕ of her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이고, 동격의 of 다음에 동명사구가 와야 하므로 offer를 offering으로 바꿔야 한다.  
 ㉖ of the that은 동격의 that으로 앞에는 추상명사가 와야 하므로 factual을 fact로 고쳐야 한다. 반면, ㉗㉘는 어법상 옳은 문장이다.  
 ㉙ 그가 다쳤다는 소식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었다.  
 ㉚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부양해야 한다는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
- 27 「with + 명사 + 분사」는 「~가 ...한 채로[하면서]」라는 의미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다.
- 28 to부정사(형용사적 용법)가 the perfect thing과 the perfect person을 수식하며, 형용사 fresh를 동사 freshen으로 바꾸고, 대명사가 동사와 부사 사이에 오는 것에 유의한다.
- 29 (A) 「편안한 걸음」이라는 뜻으로 relax의 현재분사 relaxing이 알맞다. 과거분사 relaxed는 사람의 감정이 유발될 때 사용한다.  
 (B) 「tell + 간접목적어 + 직접목적어」인 4형식 문장으로 직접목적어 부분이 완전한 문장이므로 접속사 that이 알맞다.  
 (C) while 다음에는 주 어와 동사가 포함된 절 형태가 오고, during 다음에는 명사구가 온다. 그러므로 이 문장에서는 명사구가 뒤따르므로 during이 알맞다.
- 30 우리 몸의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름철 냉면이 있는 이유라는 맥락이므로 「행동보다 말이 쉬운」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 easier said than done이 적절하다.
- 31 글쓴이는 우연히 국수 가게에 들렀다가 김 씨를 만났다고 했으므로 ㉔ 「국수 가게에서」가 적절하다.  
 ㉑ 공원에서 ㉒ 거리에서 ㉓ 서점에서 ㉕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 32 (A) 문장의 동사 learned의 목적어절로 완전한 문장이 뒤따르므로 접속사 that이 알맞다.  
 (B) without 다음에 동명사구가 오고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its cold noodles와 동명사가 수동 관계이므로 동명사의 수동 형태인 being topped가 알맞다.  
 (C) 국수는 제공 되는 것이므로 수동태(are served)가 알맞다.
- 33 반복되는 명사를 피하기 위해서 대명사 단수는 that, 복수는 those를 쓴다. 진정한 맛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밑줄 친 that이 가리키는 것은 The real taste이다.
- 34 이 글에서 냉면은 차가운 면에 매운 양념이 없어지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다고 했으므로 ㉔ 「면 그 자체는 매운 양념 없이 완벽할 수 있다.」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㉑ 냉면에는 두 가지 주요한 종류가 있다.  
 ㉒ 각 냉면의 양념은 같지 않다.  
 ㉓ 냉면은 주로 면과 양념으로 이뤄져 있다.  
 ㉔ 당신의 선호에 따라 둘 중 선택해라.
- 35 (A) 「ask + 목적어 + 목적격보어(to부정사)」로 to join이 알맞다.  
 (B) 「with + 명사 + 분사」 구문에서 명사와 분사와의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과거분사 matched가 알맞다.  
 (C) The ingredients를 수식하는 자리이며,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used가 알맞다.
- 36 접속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After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문이며, 「~으로 결정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decide on과 「~을 전문으로 하다」라는 의미인 specialize in에 유의한다. 그리고 one은 a restaurant를 가리키므로 one을 수식하는 specialize를 능동의 현재분사(specializing)로 쓴다.
- 37 (1) 질문은 「삼계탕에는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 있었는가?」라는 뜻으로 이에 대한 답변으로 a whole young chicken stuffed with ginseng, garlic, and rice가 적절하다.  
 (2) 질문은 「글쓴이는 삼계탕을 먹은 후에 어떻게 느꼈나요?」라는 뜻으로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The ingredients used in samgyetang would take my summer blues away(삼계탕에서 사용된 재료들이 여름철 나의 우울한 기분을 날려 버릴 것이다.)라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summer blues away가 적절하다.
- 38 sweating에 대해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이다. that은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로 쓸 수 없으므로 ㉔that을 which로 고쳐 써야 한다.
- 39 더운 여름에 매운 양념을 즐기고, 뜨거운 삼계탕을 먹는 것은 속담 ㉑ 「이열치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㉒ 인내가 미덕이다  
 ㉓ 부전자전  
 ㉔ 아예 안 오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오는 것이 낫다  
 ㉕ 아니 뎀 굴뚝에 연기 날까
- 40 「with + 명사 + 분사」는 문장의 주절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나타낼 때 이용한다. 이를 부사절로 바꾸면 「while(as) + 주어 + 동사」로 바꿔 쓸 수 있다.
- 41 (A) 분사구문으로 주어(I)가 보는 것이므로 능동의 현재분사 looking이 알맞다.  
 (B) There가 문두에 오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어 「There + 동사 + 주어」이지만 주어와 대명사인 경우 「There + 주어 + 동사」로 쓴다.  
 (C) to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an unhappy face와 to부정사의 동사가 수동 관계이므로 to be seen이 알맞다.
- 42 닭을 돌려서 먹기 시작할 가장 타당한 곳을 찾으며 조사했다는 맥락이므로 illogical(비논리적인, 이치에 맞지 않는)을 logical(타당한, 논리적인)로 바꿔야 한다.
- 43 식당 안에서 어떤 불행한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㉔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44 더운 여름에 뜨거운 수프를 먹고 난 후 몸이 상쾌해지는 것을 깨달았다는 내용이므로 ㉔ refreshed(상쾌한)가 적절하다.  
 ㉑ 지친 ㉒ 혼란스러운 ㉓ 애착을 가진 ㉔ 분개하는
- 45 글쓴이가 온천에서의 목욕 후에 매운 라면을 즐긴다는 것을 통해 이열치열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뜨거운 음식 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cool을 hot으로 고쳐야 한다.



01 ③	02 ④	03 ⑤	04 ③	05 ③	06 ④
07 ②	08 ③	09 ③	10 ④	11 ④	12 ④
13 ④	14 ⑤	15 ①	16 ③	17 ④	18 ④

- 01 (A) 대명사(me)는 동사와 부사 사이에 위치하므로 freshen me up이 적절하다.  
 (B) 등위접속사 and에 의해 happened, enjoyed, met이 병렬 관계이다.  
 (C) 한국의 여름철에는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것이 바로 냉면이 있는 이유라는 맥락이므로 that's why(그것이 바로 ~이다)가 적절하다.
- 02 빈칸 앞에서 우리 신체의 냉기와 온기의 정도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하다고 언급하므로, 우리의 몸에 조율이 필요할 때는 바로 이러한 음과 양이 균형을 맞지 않을 때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빈칸에는 ④ out of balance(균형이 맞지 않는)가 가장 적절하다.  
 ① 균형이 맞는  
 ② 진행 중인  
 ③ 보통보다 훨씬 높은  
 ⑤ 한계를 넘어
- 03 글쓴이가 서울의 한 국수 가게에서 만난 어르신을 통해서 한국인들이 몸의 냉기와 온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름에 먹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이므로 ⑤ '한국에서 더운 여름날을 대처하는 것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가 가장 적절하다.  
 ① 서울에 있는 최고의 국수 가게를 찾기 위해  
 ② 사람들이 지역 음식 전문가를 만나도록 돕기 위해  
 ③ 서울의 여름과 겨울을 비교하기 위해  
 ④ 우리에게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 04 주어진 문장은 '하지만 냉면은 차가운 면에 매운 양념이 얹어지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물냉면의 겨자 소스와 비빔냉면의 고추장 소스가 있어야 진정한 맛을 즐길 수 있다는 문장의 바로 앞인 ③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 05 여름에 매운 양념을 즐기는 것이 시원함을 유지하도록 돕는다고 했으므로 특정 약초와 매운 양념이 자연스럽게 몸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빈칸에는 ③의 '몸을 식혀주는'이 가장 적절하다.  
 ① 열기를 복돋는  
 ② 젓게 만드는  
 ④ 탈수로 이끄는  
 ⑤ 매우 편안한
- 06 더운 여름날 음과 양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운 음식과 차가운 국수를 먹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는 맥락이므로 (A)에는 keep(유지하다), (B)에는 beneficial(이로운, 유익한)이 가장 적절하다.  
 ① 흡수하다 ..... 중요한                      ② 속이다 ..... 도움이 되는  
 ③ 예측하다 ..... 호의적인                      ⑤ 악화시키다 ..... 상당한
- 07 (A) 완전한 문장이 뒤따르므로 접속사 that이 적절하다.  
 (B) 「with + 명사 + 분사」 구문에서 명사(the summer)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기 때문에 현재분사 progress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C) decide는 to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므로 to try가 적절하다.
- 08 every 다음에는 단수 명사가 와야 하므로 drops를 drop으로 바꿔 써야 한다.
- 09 (A) 삼계탕을 어떻게 먹는지 몰라서 닭, 밥 그리고 국물을 번갈아 가며 먹었다는 맥락이므로 alternated(번갈아 하다)가 적절하다. (stop: 멈추다)  
 (B) 밀반찬으로 나온 김치, 고추, 오이를 많이 먹었고, 말할 필요도 없이 빼 넣는 통을 빈 빼로 채웠다는 맥락이므로 filled(채웠다)가 알맞다. (combine: 결합하다)  
 (C) 글쓴이와 Damil은 탁자 위의 접시를 깨끗이 비웠고 놀라움에 서로를 바라봤다는 맥락이므로 amazement(놀라움)가 적절하다. (amusement: 즐거움)
- 10 글쓴이와 Damil은 땀을 흘리면서 삼계탕을 먹고 주변을 둘러보니 자신들뿐만 아니라 식당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땀을 흘리면서 삼계탕을 먹고 있다고 언급한다. 그러므로 '우리만이 아니었다.'라는 문장 앞인 ④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야 자연

스럽다.

- 11 ④의 주어(it)와 동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수동태(is topped with)로 써야 한다.
- 12 글쓴이는 한국에 온지 5년이 넘었으며, 순두부찌개를 가장 좋아한다고 했다. 순두부찌개에는 보통 해산물이 들어가지만 쇠고기나 돼지고기, 버섯이 들어가는 다른 형태도 있다고 언급한다. 순두부찌개는 대부분 고추장 소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맵고, 계란이 토피므로 올라간다고 했으므로 ④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 13 글쓴이가 수프를 먹고 난 후 서울의 여름날이 시원하게 느껴지고, "이열치열"의 지혜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므로 ④ '그것은 우리가 "이열치열"의 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글의 흐름상 적절하지 않다.
- 14 ⑤ 오직 한국인들만 "이열치열"의 지혜를 삶에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① 글쓴이는 한국에서 로스앤젤레스의 늦가을을 느꼈다.  
 ② 글쓴이는 마침내 그 오래된 숙담을 이해할 수 있었다.  
 ③ 글쓴이가 상쾌함을 느낀 이유는 그 수프 때문이었다.  
 ④ 글쓴이와 Damil은 서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 15 글쓴이가 수프를 먹고 진정으로 상쾌함을 느꼈고, 친구와 여름밤을 즐겼다는 내용을 통해서 ① '편안하고 느슨한'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우울하고 슬퍼하는  
 ③ 재미있고 활기찬  
 ④ 장엄하고 웅장한  
 ⑤ 우울하고 실망한
- 16 주어진 글은 삼계탕을 먹어보기 위해서 삼계탕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찾았다는 내용으로 식당에 도착한 후 식당 주인의 인사를 받고, 밀반찬과 삼계탕이 나왔다는 (B)로 이어진다. 그 다음으로 삼계탕을 보고 크리스마스의 어린 아이처럼 기뻐했다는 (C)가 오고, 삼계탕을 먹고 난 후 어르신의 지혜를 이해하고 우울한 기분을 날려버릴 것 같다는 내용의 (A)가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 17 ①②③⑤는 삼계탕을 가리키고, ④는 삼계탕의 재료를 가리킨다.
- 18 글쓴이가 삼계탕을 먹고 더운 여름날의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④ '삼계탕 먹기: 멋진 경험'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① 오래된 지혜를 버리자  
 ② 당신은 삼계탕을 어떻게 먹는가?  
 ③ 지역 음식을 이용하는 지역 식당  
 ⑤ 크리스마스 선물: 어린 아이들의 기쁨

01 (o)ffer (f)ood, (p)erson	02 ⑥ → degree
03 (A) (d)rop into (B) (o)ut of balance (C) (e)asier said than done	
04 ④ → what	05 ② → try
06 "이열치열"은 여름에 매운 양념을 즐기는 것이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07 Later, with the summer progressing, the weather kept getting hotter.	
08 (1) ③ → specializing (2) ④ → covered	
09 With a delight only matched by children on Christmas morning	
10 ⑥ Damil은 내게 많이 뒤처지지 않았다 ⑥ 우리는 땀을 흘리며, 배부르고 행복한 채로 그곳에 있었다. ⑥ 어떤 불행한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	

- 01 (A)(B)(C)는 상대방에게 음식을 권하는 표현이므로 To offer food to a person 이 알맞다.
- 02 우리 몸의 냉기와 온기의 정도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건강하다는 맥락이므로 ⑥sum(총합)을 degree(정도)로 바꿔야 한다.
- 03 (A) '-~에 들르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은 drop into이다.  
 (B) '균형이 맞지 않는'이란 뜻의 표현은 out of balance이다.  
 (C) '행동보다 말이 쉬움'이란 뜻을 나타내는 표현은 easier said than done이다.
- 04 관계대명사 which 앞에 선행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④which를 선행사를 포함하

는 관계대명사 what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05 주어가 생략된 명령문이므로 @trying을 동사원형 try로 바꿔야 한다.
- 06 두 번째 문장인 As the old saying ~.에서 “이열치열”의 뜻을 언급하고 있다.
- 07 「with + 명사 + 분사」 구문으로 명사와 분사가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progressing)이고, ‘계속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 「keep + 동명사」에 유의하여 영작한다.
- 08 ㉓ one이 가리키는 것은 a restaurant으로 이 식당이 이 수프를 전문으로 한다는 의미의 능동 관계이므로 specializing이 알맞다.  
㉔ a table을 수식하는 분사 자리로, 김치 등이 깔린 테이블이므로 수동 관계의 과거분사 covered로 고쳐 써야 한다.
- 09 ‘~가 ...인 채로’라는 뜻을 가진 「with + 명사 + 분사」 구문은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일 때 현재분사를, 수동이면 과거분사를 쓴다. a delight와 match가 수동 관계이므로 matched로 써야 한다.
- 10 ㉔ far behind는 ‘~에 많이 뒤처지다’라는 뜻이다.  
㉕ There we were는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뜻이고, sweating은 분사구문이다.  
㉖ to be seen의 to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하는, ~할’이라는 뜻을 가지며 an unhappy face를 수식한다.

**R** 교과서 핵심 **본문 다시 쓰기**

p.115~118

- 01 What else do you expect in summer in Seoul, besides the long days and hot, sleepless nights?
- 02 It was summer again in Korea, and I was melting like an ice cream in a child’s hand on Seoul’s hot summer streets.
- 03 Luckily, in the middle of the city, I found the perfect thing to freshen me up and met the perfect person to help me out.
- 04 After taking a relaxing walk along the back streets of Jongno, I happened to drop into a noodle shop, enjoyed their cold noodles, and met a kind old man.
- 05 “We enjoy cold noodles when the summer heat arrives,” Mr. Kim said.
- 06 He also told me that we are healthy only when the degree of coldness and hotness of our body is balanced.
- 07 This is exactly what I read about in a book on Korean culture and philosophy: When our yin and yang are out of balance, our body is in need of a good tune up.
- 08 “Of course, during summer in Korea, that is often easier said than done, and that’s why we have cold noodles in summer,” he added.
- 09 From this old man, I learned that *naengmyeon* is wonderfully diverse, but that the two main versions are *mulnaengmyeo*— water chilled noodles, and *bibimnaengmyeon*—mixed chilled noodles.
- 10 When you want something cool and refreshing, go for *mulnaengmyeon*.
- 11 When you want something a little drier and spicier, try *bibimnaengmyeon*.
- 12 *Naengmyeon*, however, is not complete without its cold noodles being topped with hot spices.
- 13 The real taste of *mulnaengmyeon* comes out when the noodles are topped with mustard sauce, and that of *bibimnaengmyeon* when the noodles are served with a red pepper sauce.
- 14 Thus, it’s not just the coldness of the noodles, but the heat from peppers that Koreans have used for centuries to beat the summer heat.
- 15 As the old saying ‘fight fire with fire’ goes, enjoying hot spices in the

summer helps people stay cool, and this, interestingly, is supported by modern findings in herbal medicine: certain herbs and spices cause sweating, which naturally cools the body.

- 16 When we parted, the wise old man told me that a real ‘fight fire with fire’ experience comes with *samgyetang* in the very middle of summer.
- 17 Later, with the summer progressing, the weather kept getting hotter.
- 18 So I decided to try out my newly attained cultural wisdom, and walked outside along the hot street to find Mr. Kim’s cure all, *samgyetang*.
- 19 The idea of eating *samgyetang* sounded good, but I didn’t want to try it all alone.
- 20 So I asked my friend Damil to join me, and then I committed to the experience.
- 21 After researching nearby restaurants, I decided on one specializing in this soup.
- 22 When we arrived, the owner of the restaurant gave us a broad, curious smile, and showed us to a table covered with *kimchi*, hot green peppers, and red pepper sauce.
- 23 Within minutes, two boiling bowls were placed on our table.
- 24 With a delight only matched by children on Christmas morning, I blew on the soup to part the steam and catch my first glance of this tasty treat: a whole young chicken stuffed with ginseng, garlic, and rice, served in a clear broth.
- 25 It all made sense now. I finally understood the old man’s wisdom.
- 26 The ingredients used in *samgyetang* would take my summer blues away.
- 27 I turned the chicken around and investigated it, looking for the most logical place to begin.
- 28 Still not knowing, I alternated between tender chicken, rice, and broth. I ate every drop.
- 29 Damil wasn’t far behind me, and between the two of us, we ate the entire dish of *kimchi*, two peppers each and a whole lot of cucumbers.
- 30 Needless to say, we filled the bone bucket with the empty chicken bones.
- 31 We cleaned each dish on the table and stared at each other in amazement.
- 32 There we were, sweating, full and happy.
- 33 Then we looked around.
- 34 We were not alone.
- 35 The whole restaurant was filled with people, eating and sweating, sweating and eating.
- 36 There wasn’t an unhappy face to be seen.
- 37 As we left the restaurant, I felt a breath of fresh air.
- 38 Whether the wind was real or imagined, and whether the benefit of the soup was real or imagined, I felt truly refreshed.
- 39 With that feeling came a sudden understanding of the ‘fight fire with fire’ wisdom: enjoy something really hot, let the body breathe out, and find yourself refreshed in a breeze.
- 40 Finally, Seoul’s summer heat felt as cool and fresh as the late fall in Los Angeles.
- 41 Damil and I didn’t go home right away.
- 42 We stayed around to enjoy the summer evening, laughing and talking about another ‘fight fire with fire’ experience—the chance of enjoying spicy *ramyeon* after taking a boiling bath at a hot spring.

# 최종점검 모의고사

## Lesson 03 독해 실전 모의고사

p.120~127

01 ⑤	02 ②	03 ③	04 ③	05 ③	06 ⑤
07 ①	08 ②	09 ③	10 ④	11 ③	12 ③
13 ③	14 ④	15 ③	16 ②	17 ③	18 ③
19 ④	20 ⑤	21 ②	22 ④	23 ⑤	24 ①
25 ①					

- 01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았던 슈바이처 박사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⑤ '어렵거나 실제적으로 불가능한'이 가장 적절하다.  
 ① 훨씬 더 중요한  
 ② 재미있고 흥미로운  
 ③ 매우 힘들고 가슴 아픈  
 ④ 분명하지만 누구에게나 까다로운 (tricky: (하기·다루기) 힘든[까다로운], 곤란한)
- 02 such actions(그러한 행동들)는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우리가 취하는 작은 행동들'을 의미하므로, ②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such actions와 거리가 멀다.  
 ① 노숙자를 위한 지역 급식소에서 자원봉사하기  
 ③ 다리가 부러진 친구의 책방 들어주기  
 ④ 남동생의 수학 숙제를 도와주기  
 ⑤ 나이 드신 분들을 즐겁게 해 드리기 위해 근처의 요양원 방문하기
- 03 작은 행동들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든 십 대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겠다는 내용의 글로서 글의 목적으로는 ③ '작은 행동으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십 대들을 소개하기 위해'가 가장 적절하다.  
 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 자신을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에 대해 십 대들에게 조언하기 위해  
 ② 위대한 사람들의 업적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을 되돌아보기 위해  
 ④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위대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⑤ 십 대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하기 위해
- 04 주어진 문장은 '제가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여기에 왔습니다.'라는 의미이므로, them은 these yellow sticky notes(노란색 끈끈이 종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③에 들어가 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는 문장 '그것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며, 그들이 행복을 느끼도록 돕는 것이다.' 앞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
- 05 (A) 뒤에 이어지는 절의 전치사 for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의문사 what이 적절하다. 또한 what은 know의 목적어로 간접의문문(의문사 + 주어 + 동사)으로도 쓰였다.  
 (B) 2개 이상의 과거의 사건을 시간 순으로 언급할 때에는 과거완료 시제를 쓰지 않고 과거형을 쓰므로 break의 과거형 broke(부셨다)가 적절하다. 여기서 동사 broke와 used는 등위접속사 and로 연결된 병렬 구조이다.  
 (C) 앞의 형용사 hurtful and difficult(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든)를 수식하는 to 부정사(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가 적절하다.
- 06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말(words)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이므로, ⑤ '다른 사람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① 다른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  
 ②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③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격려하기] 위해  
 ④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 07 ① '~하느라 시간[돈]을 쓰다'의 의미로 「spend + 시간[돈] + 동명사」 구문을 쓰

- 므로 making positive notes(긍정적인 메시지들을 만드는 것)가 적절하므로 made는 mak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08 처음에는 주변을 어지럽힌다고 꾸지람을 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호응을 얻었으므로, ② '내가 놀랍게도'가 적절하다.  
 「to one's + 감정 명사」는 '~가 ...하게도'라는 뜻으로 감정을 강조하는 부사구로 내가 놀란 것이므로 To my surprise로 표현한 것이다.  
 ① 내가 부끄럽게도  
 ③ 말할 필요도 없이  
 ④ 다르게 얘기하면  
 ⑤ 설상가상으로
- 09 나중에 친구들이 캠페인에 동참했지만, 처음부터 지지해주었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 10 고등학교에 가면서 남을 위한 긍정의 행동을 시작한 것에 대한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목적으로 ④ '긍정적인 메시지 캠페인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가 가장 적절하다.  
 ① SNS에 올린 나쁜 말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②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③ 긍정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SNS를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⑤ 이 캠페인의 진행에 있어서 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 11 뒤에 많은 노인들이 안 좋은 건강, 빈곤, 고독으로 고통받는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③junior(연소자)를 senior(고령자)로 바꿔 써서 우리 공동체의 고령자들을 (senior citizens) 돕는 데 동참해 달라고 하는 것이 문맥상 적절하다.
- 12 「No matter how + 형용사 + 주어 + 동사」는 '얼마나(아무리) ~일지라도'의 의미로 「However + 형용사 + 주어 + 동사」와 같은 의미이다.  
 ① 그것이 간단하다면  
 ② 그것이 간단하지 않다면  
 ④ 그것이 아주 간단한 반면에  
 ⑤ 그것이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 13 글 (A)에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보통의 십 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며, 그것이 아무리 간단한 것일지라도 우리 가족과 공동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고, 글 (B)에서는 우리 공동체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곤경에 처한 노인들을 돕는 데 동참해 달라는 내용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③ '작은 행동들로 변화를 이루자'가 가장 적절하다.  
 ① 어떻게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할 것인가?  
 ②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  
 ④ 긍정적인 메시지 캠페인에 우리와 동참하세요  
 ⑤ 우리 공동체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의 어려움
- 14 주어진 문장은 '밤에 헤매고 다니시는 것은 특히 위험해요.'라는 의미이므로 할 아버지가 밤에 헤매고 다니다가 몇 번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의 ④ 다음 문장 앞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
- 15 환자가 침대 밖으로 발을 내디딜 때 간병인의 스마트폰에 경보를 작동시키는 방식이므로 무선 시스템(wireless system)이 가장 적절하다.  
 ① 유선의  
 ③ 간단한  
 ④ 최첨단의  
 ⑤ 복잡한
- 16 Greg는 오늘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컴퓨터 기술을 공유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컴퓨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어서 기쁘다고 했으므로 ②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Greg는 많은 십 대들이 하는 것처럼 컴퓨터 게임하기를 좋아한다.  
 ③ Greg는 그의 컴퓨터 게임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웠다.  
 ④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자주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며, 그들이 어디를 가는지도 모른다.  
 ⑤ Greg의 할아버지는 알츠하이머병을 앓았기 때문에 여러 번 사고를 경험했다.
- 17 (A) 작은 무선 회로에 부착되는 것이므로 '얇은(thin) 필름 센서'가 적절하다. (thick: 두꺼운)  
 (B) 환자가 침대 밖으로 발을 내디딜 때 그 압력(pressure)이 시스템으로 하여금 경보음을 보내게 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temperature: 온도, 체온)  
 (C)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해 양로원에 기부한다는 의미가 되어야 함으로



뒤에서 수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주어가 enjoying의 동명사구이므로 동사는 현재형 helps가 적절하다.
- ④ 「with + 목적어 + 현재분사」의 분사구문으로 progressing은 적절하다.
- ⑤ ‘새롭게 얻게 된’이라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과거분사 attained는 적절하다.
- 10 “이열치열(열은 열로써 다스린다.)”과 같은 의미의 말은 ③ ‘도둑을 잡기 위해서는 도둑을 세워라. (도둑으로 도둑을 잡게 하라.)’이다.
  - ① 벽에도 귀가 있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 ②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多多益善))
  - ④ 한 개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 (일석이조(一石二鳥))
  - ⑤ 같은 깃털의 새들이 함께 모인다. (유유상종(類類相從)) (feather: 깃털 / flock: ⑥ 모이다, ⑦ 떼, 무리)
- 11 김 선생님이 소개한 삼계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여름을 이기기 위한 특효 음식이다.
- 12 글의 요지로는 ⑤ ‘여름의 열기를 극복하기 위해 2가지 한국 음식이 소개되고 있다.’가 적절하다.
  - ① 그들은 어르신으로부터 한국 음식의 역사에 대해 들었다.
  - ② 냉면에 매우 양념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다.
  - ③ 한국의 음식을 통해 한국 문화의 지혜를 느낄 수 있다.
  - ④ 고추는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음식에 사용되어져 왔다.
- 13 주어진 문장이 친구인 Damil에게 함께 하자고 요청하는 내용으로 보아 혼자 시도하고 싶지 않다는 I didn't want to try it all alone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따라서 ①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나는 내 친구인 Damil에게 함께 하자고 부탁을 하고서는 그 경험을 시도했다.
- 14 (A) 앞에 있는 one은 a restaurant를 가리키므로 국물 요리에 전문화된 식당이므로 능동의 현재분사 specializing이 적절하다.
 

(B) ‘수증기를 떨어뜨리기 위해’라는 의미이므로 부사적용법의 to부정사가 되어야 하므로 to part가 적절하다.

(C) 앞에 있는 a whole young chicken(어린 닭 한 마리)를 수식하므로 수동의 과거분사 served가 적절하다.
- 15 글쓴이와 친구 Damil 처음으로 맛보게 된 삼계탕에 대한 만족감을 잘 나타낸 글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④ ‘삼계탕: 우리가 처음 맛보다’가 적절하다.
  - ① 삼계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 ② 김치를 곁들인 삼계탕
  - ③ 삼계탕에 쓰인 엄청난 재료들
  - ⑤ 무엇이 한국 식당을 그렇게 번잡하게 하는가?
- 16 (A) 먹어야 하는 음식이므로 ‘부드러운 닭’이 타당하므로 tender(부드러운)가 적절하다. (tough: 거친)
 

(B) 친구와 글쓴이 둘 다 테이블 위의 접시들을 깨끗이 비운 후에 서로 놀라서 바라보는 것이므로 stared(바라보았다)가 적절하다. (glance: 훑어 보다)

(C) 만족해하지 않는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는 내용이고 앞에 wasn't가 있으므로 unhappy(불만족스러워 하는)가 적절하다. (happy: 행복한)
- 17 ‘우리끼리 얘기인데’의 의미로 빈칸에는 ⑤ ‘~의 사이에’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① ~을 위한, ~의
  - ② ~와 함께
  - ③ ~중에, ~의 사이에서. ~의 가운데에
  - ④ ~옆에
- 18 글쓴이와 친구 Damil은 서로 뒤쳐지지 않고 음식을 먹었으므로 ②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19 글쓴이와 친구 Damil이 테이블 위의 접시들을 모두 비울 정도로 음식에 만족하고 있으므로 ⑤ contented(만족한)가 적절하다.
  - ① 지루해하는
  - ② 안도하는
  - ③ 짜증이 난, 불쾌한
  - ⑤ 실망한, 좌절감을 느끼는
- 20 (A) ‘새로워진’이라는 감정을 나타내는 말은 과거분사형 형용사 refreshed가 적절하다.
 

(B) 부사구 With that feeling이 문장 앞에 온 도치구문으로 주어는 a sudden

understanding이다. 따라서 동사 came이 적절하다.

- (C) 사역동사 let이 있으므로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 breathe가 적절하다.
- 21 또 다른 “이열치열”의 사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라면을 즐길 ‘the chance of(~라는 기회)’라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③ ‘chance(기회)’가 적절하다. 여기서 of 이하는 빈칸의 chance와 동격으로 쓰였고, 전치사 of 뒤에 동명사 enjoying이 오고 spicy ramyeon은 동명사 enjoying의 목적어가 된다.
  - ① 맛
  - ② 냄새
  - ④ 상황
  - ⑤ 유희
- 22 식당에서 “이열치열”을 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난 후에 느끼는 그들의 기분을 잘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① ‘이열치열의 깨달음’이 적절하다.
  - ② 한국 여름 공기의 신선함
  - ③ 여름 저녁에 잘 어울리는 음식들
  - ④ 삼계탕 전문 식당들
  - ⑤ 한국에서 인기 있는 음식들을 즐길 몇 가지 방법들
- 23 「find + 목적어 + 분사」의 구조가 되어야 하므로 ② contain을 contain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24 (A) 순두부 찌개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에 관한 내용이므로 common(일반적인)이 적절하다. (rare: 드문)
 

(B) 고추장 소스가 대체로 찌개에 들어가므로 spicy(매운)이 적절하다. (sweet: 달콤한)

(C) 가장 인기 있는 치킨 집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popular(인기 있는)이 적절하다. (unique: 독특한)
- 25 소개 받은 치킨집이 맛에 있어서 좋지만, 거기에 추가하여(What's more) 웨이터들이 친절하고 가격이 적당하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④ ‘reasonable(합당한)’이 적절하다.
  - ① 부당한
  - ② 현실적인
  - ③ 불합리한
  - ⑤ 비싼

Lesson 03 서술형 실전 모의고사

p.136~143

- 01 ㉠ fell ㉡ have hurt ㉢ was
- 02 I'm relieved to hear that. → I'm sorry to hear that. [That's too bad. / That's a pity.]
- 03 Can we be of any help with that?
- 04 ㉠ themselves ㉡ to live in ㉢ creating 05 (o)rdinary
- 06 small actions that we take for our family and friends in our everyday lives
- 07 ㉠ these yellow sticky notes ㉡ how I use them
- 08 (1) ㉠ → (h)ateful (2) ㉠ → (o)vercome
- 09 (1) words (2) encourage (3) hurt
- 10 posting notes with positive messages all over the school
- 11 didn't take long before the campaign gained attention and support
- 12 ㉠ (s)urprise ㉡ (s)upport
- 13 Positive Words Replacing Negative Ones
- 14 I learned from this experience is
- 15 ㉠ something we ordinary teenagers can do to contribute to making a better world
  - ㉡ elderly people struggling with poor health, poverty and loneliness
- 16 (1) (e)ncourage (2) (p)articipate (3) (c)ampaigns
- 17 loves playing computer games
- 18 저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 19 (A) → In fact (B) → So

20 ㉠ attached ㉢ planted ㉡ programmed ㉣ donate

21 was delighted when it worked

22 (B) was → were (C) that → what

23 What I really wanted to tell you today

24 your knowledge and skills

25 talent donation

- 01 ㉠ 자석이 다리가 부러진 것은 과거의 일이므로 fall(넘어지다)의 과거형 fell로 고쳐 써야 한다. fell on the stairs와 broke it이 and에 의해 병렬로 연결된다. ㉢ must를 써서 과거의 일을 나타낼 때에는 「must have + 과거분사」(~했었음에 틀림없다)로 나타낸다. 따라서 hurt는 have hurt로 고쳐 써야 한다. ㉡ be동사 뒤에 another accident라는 단수명사가 왔으므로 be동사도 단수명사가 되어야 하고, 문장에서 last year로 보아 과거시제이므로 be동사도 과거시제 was로 고쳐 써야 한다. 「There is + 단수명사」, 「There are + 복수명사」
- 02 남자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했으므로, 그에 대해 여자는 유감이나 동정을 표시하는 표현으로 대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여자의 두 번째 말 I'm relieved to hear that.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된다.)은 I'm sorry to hear that. (그 말을 들으니 유감이구나.), That's too bad. (참 안됐다.), That's a pity. (그거 안됐다.) 등과 같은 표현으로 바꿔 써야 한다.
- 03 앞에서 자동차 사고가 더 이상 자동차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뒤에서는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거기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미의 도움을 제안할 때 쓰는 표현이 되도록 어휘를 배열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Can + 주어 + be + of any help + with ~」(~가 ...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의 어순으로 어휘를 배열한다.
- 04 ㉠ 동사 sacrificed의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인이므로 목적어로 재귀대명사 themselves로 고쳐 써야 한다. ㉢ 앞의 a better place가 뒤의 to부정사의 수식을 받으며, live는 목적어를 취할 수 없으므로 a better place를 목적으로 하는 전치사 in을 덧붙여 써야 한다. ㉡ toward가 전치사이므로 동명사 creat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05 영영풀이는 '어떤 식으로든 색다르거나 특별하지 않은'의 의미이며, '보통 사람들이 슈바이처 박사가 했던 것에 맞춰 사는 것이 어렵거나 실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문맥상 적절하므로 빈칸에는 ordinary(보통의)와 같은 말이 적절하다.
- 06 such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의 의미이므로, such actions(그러한 행동들)는 앞 문장의 small actions that we take for our family and friends in our everyday lives(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족과 친구를 위해 취하는 작은 행동들)를 가리킨다.
- 07 ㉠ probably use them for many purposes가 '이 노란색 끈끈이 종이(these yellow sticky notes)를 많은 목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 It은 앞 문장의 how I use them(제가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them은 these yellow sticky notes를 가리킨다.
- 08 ㉢ 영영풀이는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혐오할 만한'의 의미로, 누군가 내 사물함을 부수고 들어와 내 휴대 전화를 사용하여 내 SNS 페이지에 혐오스러운(hateful) 것들을 올렸다고 하는 것이 문맥상 적절하다. ㉠ 영영풀이는 '문제나 어려움을 처리하는 데 성공하다'의 의미로, 그 일을 마음을 너무 상하게 했고 극복하기(overcome) 어려웠다고 하는 것이 문맥상 적절하다.
- 09 중학교 때 누군가가 필자의 휴대 전화로 필자의 SNS에 혐오스러운 것들을 올렸던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지만, 필자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hurt)보다는 사람들을 격려하는(encourage) 데 말(words)을 사용해야겠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에서 필자의 주장이 적절하다.
- 10 I was scolded for making a mess!는 '나는 어지럽힌 것(making a mess)에 대해 꾸중을 들었습니다!'의 의미인데 making a mess는 posting notes with positive messages all over the school(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쪽지를 학교 여기저기에 붙이는 것을) 의미한다.

- 11 '~ 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의 의미로 It didn't take long before를 쓰면 '머지 않아 ~ 했었다'라는 의미이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주어(the campaign) + 동사(gained) + 목적어(attention and support)」의 어순으로 영작한다.
- 12 ㉢ 캠페인 초기에는 주변을 어지럽힌다고 꾸지람을 들었는데, 놀랍게도(To my surprise)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생님들도 캠페인을 공식화하는 데 동의하고, 친구들이 SNS 페이지를 만드는 데 동참했다고 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게 적절하다. ㉠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사람들로 부터 지지(support)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게 적절하다.
- 13 '긍정적인 메시지' 캠페인이 진행됨에 따라 긍정적이고(Positive) 강력한 말들(words)이 부정적이고(Negative) 혐오스러운 말들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words가 복수이므로 이것을 지칭하는 one도 복수로 ones로 바꿔 써야 한다.
- 14 앞에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있으므로, What이 이끄는 관계절이 문장 전체의 주어부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계절의 주어(I), 동사(learned)이고 learned의 목적어가 관계대명사 What으로 앞에 있다고 보면 된다. 부사구 from this experience로 이어지면 된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 절이 주어로 쓰일 때는 「What ~ is[was] that ...」 형태가 되고, 여기서 시제가 현재이므로 전체 문장의 동사는 is를 쓰고,이어서 보여줄을 이끄는 접속사 that절이 이어지는 구조이다.
- 15 ㉢ No matter how simple it is는 '그것이 아무리 간단한 것일지라도'의 의미인데 여기서 it(그것)은 앞 문장의 something we ordinary teenagers can do to contribute to making a better world(우리 보통 십 대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리킨다. ㉠ 그들(them)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는 내용이므로, them은 앞에서 언급한 허약한 건강 상태, 빈곤, 고독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노인들(elderly people struggling with poor health, poverty and loneliness)을 가리킨다.
- 16 영영풀이는 '(1) 누군가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다. (2) 어떤 활동에 참여하다. (3)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수행하는, 계획된 일련의 활동'의 의미이다. 우리 공동체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십 대들이 캠페인(campaigns)이나 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participate) 권장하는(encourage) 내용의 글이다.
- 17 '제 나이에 누가 그렇지 않겠어요?'는 형태상 의문문이지만 의미상 '제 나이에 누구나 그렇습니다'라는 의미의 문장이다. 즉 '제 나이에 누구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와 같은 의미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어휘를 찾아 쓴다.
- 18 it은 앞에 나온 another way to use my skills를 가리키며, my skills는 my computer programming skills를 뜻하므로, 이를 합쳐서 쓰면 된다.
- 19 (A) 앞에서 알츠하이머 환자가 밤에 해매고 다니는 것이 특히 위험하다고 언급하고, 뒤에서 할아버지가 밤에 해매고 다니시다가 사고를 몇 번 당했다고 말함으로써 앞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사실 확인'의 접속사 In fact(사실은)가 적절하다. (B) 앞에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할아버지를 돕고 싶다고 했고, 그래서 무선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일에 착수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므로,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So(그래서)가 적절하다.
- 20 ㉠ it은 a small wireless circuit을 가리키므로 얇은 필름 센서가 부착된(attached) 작은 무선 회로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 이 회로는 양말이나 신발에 심어진다(is planted)라고 수동태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 '내가 또한 프로그래밍한(programmed)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한 양로원에 기부하기(donate) 위해서 더 많은 센서들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 21 '제가 기쁘게도 그것이 작동했어요!'는 '그것이 작동했을 때 저는 기뻐어요!'와 같은 의미이다.
- 22 (B) how로 시작하는 목적절의 주어가 my family and I로 복수이므로 동사는 were가 적절하다.

(C) 전치사 by의 목적어가 필요하며 불완전한 상태이고, 선행사가 없으므로 that을 선행사가 포함된 관계대명사 what으로 바꿔 써야 한다.

- 23 주어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하고, 부사 really는 동사 wanted 앞에 위치하도록 한다. wanted의 목적으로 to tell you가 오도록 쓴다.
- 24 ‘당신의 재능’은 ‘당신의 지식과 기술’을 의미한다.
- 25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knowledge)과 기술(skills)이 무엇이던 간에 그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이도록 재능 기부(talent donation)를 하자는 내용의 글이다.

**Lesson 04 서술형 실전 모의고사**

p.144~151

01 (A) → haven't (B) → well	02 global
03 that are designed to suit the tastes of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04 besides	
05 I found the perfect thing to freshen me up and met the perfect person to help me out.	
06 After I took a relaxing walk along the back streets of Jongno	
07 easier said than done	08 (A) balance (B) diverse
09 (1) tune up (2) go for	
10 its cold noodles aren't topped with hot spices, naengmyeon is not complete	
11 it's not just the coldness of the noodles, but the heat from peppers that Koreans have used for centuries to beat the summer heat	
12 a real 'fight fire with fire' experience comes with samgyetang in the very middle of summer	
13 The idea that I would eat samgyetang sounded good	
14 ㉠ specializing ㉡ covered ㉢ matched	
15 The ingredients used in samgyetang would take my summer blues away.	
16 ㉠ knowing ㉡ filled	
17 내가 맛있게 먹은 것처럼 Damil도 맛있게 먹었다.	
18 The whole restaurant was filled with people	
19 wisdom	20 (r)efreshed
21 (1) the summer heat (2) something really hot	
22 spicy ramyeon after taking a boiling bath at a hot spring	
23 ㉠ sundubu jjigae ㉡ to have the chance of enjoying really tasty chicken in the neighborhood	
24 (a) flavor (b) reasonable	25 (r)ecommend

- 01 (A) 앞의 질문이 Have you heard~의 과거완료형 질문이므로 대답도 그에 맞게 No, I haven't로 고쳐 써야 한다.  
(B) 의미상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라는 의미이므로 as well as가 되도록 good을 well로 고쳐 써야 한다.
- 02 ‘무엇이 그 식당을 그렇게(so) 만들지?’라는 의미로 여기서 ‘그렇게’는 앞에서 말한 그 식당이 매우 ‘세계적’이라고 한 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global(세계적)을 가리키는 말이다.
- 03 선행사 Korean dishes를 수식하도록 관계사 that을 제일 앞에 두며, 주격 관계대명사이므로 that 뒤에는 동사 형태가 나와야 하는데, ‘디자인 된’이라는 의미가 되려면 수동형 are designed로 써야 한다. ‘~에 맞추기 위해’라는 의미의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되도록 to suit으로 쓰고, 사람들의 입맛은 the tastes of people로 쓰면 된다. 끝으로 ‘전 세계로부터’는 from around the world로 쓴다.
- 04 영영풀이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 혹은 대상 이외의’라는 의미이므로 ‘~이외에

도’라는 의미의 전치사 besides가 들어가야 한다.

- 05 동사 find는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을 취하지 않으므로 동사 freshen을 thing을 수식하는 to부정사 to freshen으로 고쳐 써야 한다. 그리고 「동사 + 목적어 + 부사」인 경우에 목적어가 대명사이면 대명사를 동사와 부사 사이에 놓이게 하여 「동사 + 대명사 + 부사」 순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freshen up me를 freshen me up으로 고쳐 써야 한다.
- 06 주어를 생략하여 분사 형태로 만든 부사구로 생략된 주어 I를 복원시키고 분사 taking을 시제에 맞게 took으로 고쳐 절로 만들어 쓴다.
- 07 말과 행위의 관용적 표현으로 said와 done이 사용되므로 이를 이용해 easier said than done으로 표현하면 된다.
- 08 신체의 음과 양의 균형을 위해, 한국 사람들은 여름에 냉면을 먹고, 비록 냉면은 매우 다양하지만 두 개의 주요한 형태가 있다.
- 09 (1) 영영풀이의 의미는 ‘정확한 음조를 내기 위해 악기에 약간의 조정을 가하다’라는 의미로 ‘조율하다’라는 뜻의 tune up이 적절하다.  
(2) ‘뭔가를 선택하다’라는 의미로 go for가 여기에 해당한다.
- 10 밑줄 친 문장을 if로 시작하라는 것은 without을 if ~ not 구문으로 바꾸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if절 속이 부정문이 되도록 시제에 맞게 바꿔 쓴다.
- 11 강조 대상이 되는 부분을 it is와 that 사이에 놓고 문장을 구성하면 된다. it is와 that 사이에 들어간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that 이하에 써 주면 된다.
- 12 글쓰기가 시도해 보려고 하는 ‘새롭게 얻은 문화적 지혜’는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진짜 “이열치열” 경험은 삼계탕과 함께 온다’는 것을 말한다.
- 13 the idea와 of 이하의 내용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는 동격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을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that 이후의 주어는 but 이하의 주어 I와 동일하고 조동사 would를 사용하라 했으므로 that I would eat으로 고쳐 써야 한다.
- 14 ㉠ 앞에 있는 one은 a restaurant를 대신 받는 대명사로 ‘국물 요리에 전문화된’이라는 의미로 대명사 one을 수식해야 하므로 현재분사 specializing이 적절하다.  
㉡ 앞에 있는 a table을 수식하여 ‘~로 덮인’이라는 의미가 되도록 과거분사 covered가 적절하다.  
㉢ 「with + 명사 + 분사」의 분사구문으로 ‘~에 어울리는, ~에 필적되는’이라는 수동형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matched가 적절하다.
- 15 ‘~에 사용되는’이라는 의미가 되려면 과거분사가 와야 하므로 used in을 사용하면 되고, take ~ away를 ‘~를 날려버리다’라는 의미이다.
- 16 ㉠ 분사구문으로 생략된 주어가 I이므로 능동의 현재분사가 와야 한다. 따라서 known을 know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분사구문의 부정은 분사 앞에 부정어가 오는 데, 부정어 not의 위치는 적절하다.  
㉡ 주어 we가 통을 채우는 주체이므로 수동형으로 나타낼 필요가 없다. 따라서 were filled를 filled로 고쳐 써야 한다.
- 17 밑줄 친 내용의 우리말 의미는 ‘Damil도 내게 뒤처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앞에서 내가 앞에서 맛있게 먹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Damil도 나처럼 맛있게 먹었다는 의미가 적절하다.
- 18 식당에서 친구 Damil과 내가 홀로 있지 않았다는 것은 식당 안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의미로 그 다음 문장에 나온다.
- 19 “이열치열”의 지혜는 여름 날 삼계탕을 먹음으로 경험할 수 있다. 오랜 세월이 걸쳐 얻게 된 지식
- 20 식사를 마치고 나온 후, 느끼는 만족감에 대한 내용의 글이다. 공기도 신선하고 기분도 신선함을 의미하므로 refreshed(신선한)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 21 ‘정말 뜨거운 무언가를 먹음으로 여름의 열기를 극복한다.’
- 22 글의 마지막 부분에 소개된 또 다른 “이열치열”은 ‘온천에서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한 후 먹는 매운 라면’을 말한다.
- 23 ㉠ 해물을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순두부 찌개’를 말한다.  
㉡ it은 가주어로 진주어인 to have ~ 이하 즉, ‘to have the chance of enjoying really tasty chicken in the neighborhood(근처 이웃에서 정말 맛있는 닭고기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을 가리킨다.
- 24 (a) 음식이나 음료가 갖고 있는 특별한 맛 → flavor(맛)  
(b) 적당하고 지나치게 높지 않은 → reasonable(합리적인, 적당한)
- 25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한국 음식들을 추천하기 위해

01 ②	02 ③	03 spot	04 ③
05 I tripped over my own foot while I was texting. 06 ④			
07 Can we be of any help with that?		08 (1) ⑥ (2) ⑥	
09 ②	10 ④	11 To his delight	12 ④
13 Can you explain what makes you happy?			
14 The thing which[that] 15 (1) are → is (2) of → for			
16 (1) I was relieved because (2) To my great surprise			
17 ②	18 ②		
19 이 노란색 끈끈한 종이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며, 그들이 행복을 느끼도록 돕는 데 사용된다.			
20 (A) hurt (B) encourage		21 ⑤	22 ③
23 the pressure causes the system to send an alert to a smartphone application that I also programmed			
24 ① dealing with	② was struck by	③ set out	25 ④
26 ③			
27 ④	28 ⑤	29 ③	30 (A) Ordinary (B) spreading

- 01 ② '유용한 어떤 것을 얻다'는 'gain(얻다)'에 대한 영영풀이로 spread(퍼트리다)의 영영풀이로는 적절하지 않다.  
 ① 결론 짓다: 끝내거나 마치다  
 ③ 이름을 지어주다: 누군가나 어떤 것에 이름을 주다  
 ④ 기쁨: 큰 즐거움, 만족감 또는 행복  
 ⑤ 혐오스러운: 불쾌하거나 역겨운 또는 싫어하는
- 02 세상을 좋게 만드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한 대답으로 내 기술을 기부했다는 대화가 자연스럽도록 빈칸 ③ (A)에는 contributed to(기여하다), (B)에는 donated(기부하다)가 적절하다.  
 ① 참여하다 ..... 보호하다 ② ~에 반응하다 ..... 혼란스럽게 만들다  
 ④ 참여하다 ..... 간과하다 ⑤ 방해하다 ..... 자원하다  
 A: 당신은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나요?  
 B: 저는 그저 저의 기술을 기부하고 있어요.
- 03 ①은 step, ②는 plant, ③은 ordinary, ④는 trip에 해당하므로 첫 번째 철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단어는 spot(지정, 장소)이다.  
 ① 걸거나 도보로 가다: 걷다(step)  
 ② 식물을 땅 속에 넣다: (나무, 식물 등을) 심다(plant)  
 ③ 다르거나 특별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예측할 수 없지 않은; 평범한: 보통의 (ordinary)  
 ④ 걷는 중에 발을 무언가에 부딪쳐 넘어지거나 거의 넘어지다: 발을 헛디디다 (trip)
- 04 각각 숙제와 이사하는 것을 돕는다는 맥락이므로 '~가 ...하는 것을 돕다'라는 뜻의 「help + 목적어 + with + 명사」 구문을 이용하면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③ 'help ..... with'이다.  
 ① both A and B: A와 B 둘 다  
 ② prefer A to B: B보다 A를 선호하다  
 ④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체하다  
 ⑤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 내 친구들과 나는 기쁘게 너의 숙제를 도울 수 있어.  
 • 나는 내일 새 집으로 이사 갈 거야. 네가 도와줄 수 있니?
- 05 '~에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trip over와 과거진행형(was texting)에 의하여 영작한다.
- 06 ④ '유기된 많은 동물들을 돕자'는 A의 말에 '안됐다'는 B의 대답은 어울리지 않는다.  
 ① A: 나는 돌에 걸려 넘어졌어.  
 B: 안됐구나.  
 ② A: 나는 혼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해.  
 B: 도와줄까?

- ③ A: 도와드릴까요?  
 B: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그냥 둘러보고 있는 중이에요.  
 (browsing: (가게 안의 물건들을) 둘러보다, 훑어보다.)
- ⑤ A: 버스가 길에서 고장이 나서 영화 상영 시간에 너무 늦게 도착했어요.  
 B: 그 말을 들으니 유감이구나.
- 07 '우리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미를 나타내 표현은 Can we be of any help with that?가 적절하다.
- 08 (1) 주어진 문장은 '나는 이것들을 그들에게 기부할 거야.'라는 의미로 this stuff는 these school items를 가리키므로 ⑥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 주어진 문장은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미로 수연이가 선물 포장을 할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말 다음에 나와야 하므로 ⑥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9 ⑥ 부사절(as[while] I played[was playing])의 분사구문이므로 played를 능동의 현재분사 play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③ 앞에 가주어 it이 나왔으므로 진주어 자리인 walk를 to walk로 고쳐 써야 한다.  
 ④ 「let(사역동사) + 목적어 + 목적격 보어(동사원형)」로 to help를 help로 고쳐 써야 한다.  
 ⑥ 관계대명사 what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므로 what을 접속사 that으로 고쳐 써야 하며, 여기서 접속사 that은 생략할 수 있다.
- 10 ①②③⑤는 유감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④는 '감사합니다.'라는 뜻이므로 (A)와 바꿔 쓸 수 없다.
- 11 감정을 강조하는 부사구인 「to one's + 감정 명사」를 활용한다.  
 그는 그녀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뻐했다.  
 그가 기쁘게도, 그녀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 12 ④ '아무리 ~할지라도'라는 의미를 가진 「No matter how + 형용사 + 주어 + 동사」 구조이므로 No matter how hungry I am으로 써야 한다.  
 ① 그가 신나게도, 콘서트가 시작했다.  
 ② 새로운 학교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린다.  
 ③ 내가 Olivia의 생일을 기억하다니 운이 좋았다.  
 ④ 아무리 내가 배가 고프더라도, 나는 날 생선을 먹을 수 없다.  
 ⑤ 그를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그에게 콘서트를 가져오 요청했다.
- 13 관계대명사 what은 the thing which와 바꿔 쓸 수 있다.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말해줄 수 있나요?
- 14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은 the thing which[that]로 바꿔 쓸 수 있다.  
 내가 깨달았던 것은 사장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 15 (1) 「What + 주어 + 동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올 경우, 관계대명사절은 단수 취급하므로 동사 are를 is로 고쳐 써야 한다.  
 그들이 뉴스에서 들었던 것은 태풍이 곧 온다는 것이다.  
 (2) to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for + 목적격」으로 쓴다. 앞에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kind, generous 등)가 올 경우에만 「of + 목적격」으로 쓴다. 그 학생들이 운동 선수가 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16 (1) 감정을 나타내는 부사 「to one's + 감정 명사」는 문장에 따라 「to 부정사」와 '접속사'를 이용하여 같은 의미를 지닌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따라서 To my relief는 전체 문장 의미상 접속사 because를 이용하여 주어 I와 시제는 과거, 감정 형용사(relieved) 등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내 휴대폰은 부서지지 않았다.  
 = 내 휴대폰이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안도했다.  
 (2) 감정의 명사를 강조할 경우 「to one's + 감정 명사」 앞에 much를 써서 「much + to one's + 감정 명사」 'much to my surprise(내가 너무 놀랐게도)'로 나타내거나 감정 명사 앞에 great를 써서 「to one's + great + 감정 명사」인 'To my great surprise'로 표현할 수 있다.  
 매우 놀랐게도, 그는 어제 교통사고가 났다.  
 = 대단히 놀랐게도, 그는 어제 교통사고가 났다.
- 17 ②의 what은 '무엇, 어느 것'으로 해석하는 의문사이고, 나머지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다.  
 ① 그녀가 알아낸 것은 그가 유죄라는 것이었다.  
 ② 나는 그의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 ③ 나는 그가 내 생일에 내게 줬던 것을 잃어버렸다.  
 ④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것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⑤ 그 사진들이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이다.
- 18 밑줄 친 작은 행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족과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므로 ②의 '지하철 무임승차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① 식사 후 설거지하기  
 ③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가는 친구 도와주기  
 ④ 당신의 친구에게 휴대 전화 충전기 빌려주기  
 ⑤ 교실에서 쓰레기 줍기
- 19 It's to encourage people, give them strength, and help them feel happy.에서 노란색 끈끈한 종이 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알 수 있다.
- 20 글쓴이는 남을 괴롭히는 아이들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사용하지만 자신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을 쓰겠다고 했으므로, (A)에는 형용사 hurtful(마음을 상하게 하는)의 동사형인 hurt(상처를 주다)가, (B)에는 '격려하다'라는 뜻의 encourage가 들어가야 알맞다.
- 21 글쓴이는 중학교 때 누군가 글쓴이의 휴대 전화를 가져가 글쓴이의 SNS에 혐오스러운 말을 올려 상처받았지만 자신은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말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으므로 이 글의 목적은 ⑤ '사람들이 서로에게 친절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가 적절하다.  
 ① 학교에서 끈끈한 종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② SNS에 혐오스러운 메시지를 퍼뜨리기 위해서  
 ③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urge: 강력히 권고[촉구]하다)  
 ④ 괴롭힘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 22 주어진 글은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웠다는 내용으로 '그러나 자신의 기술을 사용할 또 다른 곳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B)로 이어지고, (B)의 마지막에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다는 부분과 (D)의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계신 할아버지가 그러한 사고를 몇 번 당하셨고 할아버지가 같은 환자들을 돕기 위해 간병인의 스마트폰에 경보를 작동시키는 무선 시스템을 고안하는 일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다음으로 (A)에서 무선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언급되고, 마지막으로 (C)에서 장치가 잘 작동되어 기뻐하며 자신의 지식과 기술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것에 감명을 받고, 양로원에 기부를 위해 더 많은 센서를 만들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 23 '~을 ...하도록 야기하다'라는 의미의 「cause + 목적어 + to부정사」를 이용한다.
- 24 ① 할아버지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계시는 것이므로 deal with(~을 다루다)가 알맞고, 시제에 맞게 현재진행형 dealing with로 고쳐 쓴다.  
 ②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일에 감명 받았으므로 be struck by(~에 감명 받다)가 알맞고, 글의 전체 시제인 과거시제 was struck by로 고쳐 쓴다.  
 ③ 무선 시스템을 고안하는 일에 착수했다는 의미이므로 set out(~에 착수하다)이 알맞고, set은 현재형 동사와 과거형 동사가 같으므로 set out(과거시제)으로 고쳐 쓴다.
- 25 Greg가 시스템 고안 작업에 착수했다고 했으므로 이 시스템의 완성과 사용 결과는 알 수 없다.
- 26 지식과 기술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맥락이므로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 「be used to + 동사원형」으로 고쳐 써야 한다. 「be used to + 동명사」는 '~하는 데 익숙하다'라는 뜻이다.
- 27 이 글은 지식과 기술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글의 요지로 ④가 가장 적절하다.
- 28 아무리 간단하더라도 평범한 십 대들도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complex(복잡한)를 simple(간단한)로 바꿔 써야 한다.
- 29 '긍정적인 포스트잇 데이'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긴 글을 퍼뜨리는 것이므로 ③ '그것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퍼뜨리는 것에 관한 것이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그것은 새로운 쪽지에 관한 것이다.  
 ② 그것은 정규 학교 규칙이 없는 날이다.  
 ④ 그것은 경험으로부터 배우자는 캠페인이다.

⑤ 그것은 SNS에 글을 게시하는 작은 행동이다.

- 30 이 글은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긴 쪽지를 학교에 퍼뜨리는 작은 행동으로 보통의 십 대들도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내용이므로 빈칸 (A)에는 Ordinary(평범한), (B)에는 '퍼뜨리다'라는 의미의 spread의 동명사인 spreading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평범한 십 대들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려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Lesson 04 **적중 모의고사**

p.161~169

- 01 ⑤      02 ③      03 part      04 ④  
 05 ⑧ Yes, please.    ⑩ Thank you, but I'm a little full right now.  
       ③ Would you like to try some?  
 06 ⑤      07 Which Korean dishes have you tried so far?      08 ⑤  
 09 ④      10 ③      11 change → changing      12 ③  
 13 fallen → falling      14 and it  
 15 (1) the train appeared → appeared the train  
       (2) Here are they! → Here they are!  
 16 ②      17 with her hands raised  
 18 On the first floor of the building is a toy shop.    19 ⑤      20 ⑤  
 21 ④      22 and it      23 comes out      24 ②      25 ③  
 26 ⑤      27 ⑤      28 ⑤  
 29 With that feeling came a sudden understanding of the 'fight fire with fire' wisdom  
 30 ②

- 01 ⑤ '특히 열에 의해 고체가 액체 상태로 되다'는 'melt(녹다)'에 대한 영영풀이로 'sweat(땀을 흘리다)'의 영영풀이로는 적절하지 않다.  
 ① 식히다: 차갑게 만들지만 얼리지는 않다  
 ② 바람이 불다: 공기의 흐름을 움직이고 만들다  
 ③ 호기심 많은: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배우는 데 관심이 많은  
 ④ 치료: 질병이나 상태를 치료하는 물질이나 치료법
- 02 ③의 take away는 '빼앗다'라는 뜻으로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⑥ 나는 집에 가는 도중에 세탁소에 들러야 한다. (drop into: ~에 들르다)  
 ⑥ 그녀는 긴급한 연락을 받았다. 그것이 그녀가 갑자기 떠난 이유이다. (that's way: 그것이 ~한 이유이다)  
 ⑥ 나는 그녀가 나에게 영어를 시도해 보고 싶어 했던 것이라 생각한다. (try out: ~을 시도하다)  
 ④ 정부는 보육시설을 향상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commit to: ~에 전념하다)
- 03 ①은 progress, ②는 alternate, ③은 relaxing, ④는 taste에 해당하므로 첫 번째 철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단어는 part이다.  
 ① 앞으로 나아가거나 결정된 방향으로 가다: 진행하다(progress)  
 ② 하나 다음에 다른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존재하다: 번갈아 하다 (alternate)  
 ③ 조용한, 느긋한 또는 편안한: 편안한(relaxing)  
 ④ 사람 또는 동물들의 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것의 맛: 맛(taste)
- 04 '말할 필요도 없이, 법을 어긴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빈칸에 ④ Needless to say가 가장 적절하다.  
 ① 말하자면 ② 이상한 말이지만 ③ 솔직히 말하자면 ⑤ 설상가상으로
- 05 ⑥에는 '조금 먹어 볼래?'에 대한 답변으로 Yes, please. (네, 주세요.)가 가장 적절하다.  
 ⑥에는 '소고기나 생선을 좀 먹어 볼래?'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하므로 Thank you, but I'm a little full right now.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약간 배가 불러요.)가 적절하다.  
 ⑥의 답변이 '물론이지. 나는 바비큐를 정말 좋아해.'이므로 이에 대한 질문으로 Would you like to try some? (좀 먹어 볼래?)이 적절하다.
- 06 '한국에 대해서 많이 들어 봤니?'라는 표현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므로 ⑤ '한국에 대해 그가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가 알맞다.

- ① 몇 가지 조사하기 위해서  
 ② 한국 음식을 소개하기 위해서  
 ③ 그의 다음 계획된 여행을 알기 위해서  
 ④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 07 so far는 '지금까지'라는 뜻이며,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국 음식을 먹어본 경험을 물어보고 있으므로 현재완료에 유의한다.
- 08 음식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는 ⑤ '식당'이 가장 적절하다.  
 ① 은행 ② 공항 ③ 도서관 ④ 고가도로
- 09 대화에 언급된 식당에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디자인된 맛있는 한국 음식들을 제공하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거기서 먹는 걸 즐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으므로 ④ '그 식당은 모든 입맛을 만족시키는 한국 음식을 제공한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맛있는 한국 음식은 외국인들이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  
 ② 그 식당은 전 세계에 많은 지점들이 있다.  
 ③ 한국 음식의 놀라운 맛은 세계적 관심을 끈다.  
 ⑤ 다년간의 국제적 경험이 있는 많은 요리사들이 그 식당에서 일한다.  
 (appetite: 식욕, 입맛)
- 10 ③에서 '쿠키와 아이스크림 좀 먹을래?'라는 A의 질문에 '응, 나는 완전히 배가 불러.'라는 B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고, No, I'm totally stuffed. 나 No, thanks. [No, thank you.] I'm (a little) full. (아니, 괜찮아, 나는 (약간) 배불러.) 등으로 답할 수 있다.  
 ① A: 떡국에 관해서 들어 본 적이 있니?  
 B: 응, 들어 봤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야.  
 ② A: 오렌지 주스 좀 마실래?  
 B: 응, 고마워.  
 ④ A: 여기 근처에 있는 새로운 이탈리아 식당에 대해 들어 본 적 있니?  
 B: 아니, 못 들어 봤어. 그게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뭐니?  
 ⑤ A: 어떤 지역이 비빔밥으로 가장 유명한지 알고 있니?  
 B: 나는 전주가 그 음식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들어.
- 11 동격의 of 다음에는 동명사구가 뒤따르기 때문에 change를 chang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그녀는 결국 새 직업을 찾느라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다. 그녀는 직업을 바꾸는 것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신중했어야 했다.  
 (ended up: 결국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되다)
- 12 「ask + 목적어 + 목적격 보어(to부정사)」이므로 ③에서 clap(박수[손뼉]를 치다)을 to clap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① 그는 그의 팀원들이 경기를 위해 열심히 연습하게 만들었다.  
 ② 균형은 사람들이 건강하도록 돕고 더 좋은 삶을 이끈다.  
 ③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콘서트 동안 노래에 따라 박수를 치도록 요청할 것이다.  
 ④ 천둥 번개로 우리의 창문이 흔들리고 크게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다.  
 (thunderstorm: 천둥 번개, rattle: 덜컹거리다)  
 ⑤ 나는 돈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친구가 그 음식 값을 지불하도록 했다.
- 13 「with + 명사 + 분사」로 명사(tears)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과거분사 fallen을 현재분사 fall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그녀는 두 뺨에 눈물을 흘리면서 영화를 보았다.
- 14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 대명사」로 바꿀 수 있으므로 which를 and it(it은 앞 문장 전체를 가리킴)으로 쓸 수 있다.  
 나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데, 이것은 내가 농구를 더 잘 하도록 돕는다.
- 15 (1) 부사구인 Out of the tunnel이 문장의 맨 앞에 온 도치구문(「부사(구) + 동사 + 주어」)이므로 the train appeared를 appeared the train으로 고쳐 써야 한다.  
 (2) 부사인 Here이 문장의 맨 앞에 온 도치구문이지만 주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는 「부사(구) + 주어(대명사) + 동사」이므로 Here they are!가 알맞다.  
 (1) 티널 밖으로 기차가 모습을 드러냈다.  
 (2) 여기 있어! 내가 말했던 게 기억 안나니?
- 16 ③은 어법상 옳은 문장이다. ②의 of는 동격의 of로 동명사구가 뒤따르므로

- become을 becom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④의 선행사 The component와 관계대명사의 동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uses를 is used로 고쳐 써야 한다.  
 ⑥에서 관계대명사 that 앞에 선행사가 없으므로 that을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⑥ 그들은 그들의 손에 선물을 든 채로 그를 보고 있다.  
 ⑥ 우리는 그녀에게 주어진 충고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 17 「with + 명사 + 분사」로 명사(her hands)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과거분사 raised를 써야 한다.
- 18 부사구 'On the first floor of the building'이 문두에 나오면 주어(a toy shop)와 동사(is)가 도치된다.
- 19 ⑤의 out of balance는 '균형이 맞지 않는'이란 뜻으로 in balance(균형이 맞는)와 바꿔 쓸 수 없다.  
 ① ~이외에도 ② 완벽한 ③ 느긋한, 편안한 ④ ~에 들르다
- 20 우리 몸의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하지만 이러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뜻으로 ⑤ '음과 양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무언가를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여름에는 사람들이 쉽게 피곤함을 느낀다.  
 ②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③ 어떤 것을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쉽다.  
 ④ 외국인들은 음과 양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 21 주어진 글은 냉면의 두 가지 종류를 소개하며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로 다음에 '하지만 냉면이 완벽하기 위해서는 매운 양념이 냉면의 차가운 면에 없어서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C)가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다. 그 다음 매운 것을 먹는 이유에 관한 내용인 (A)가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글쓴이가 김 씨와 헤어지고 "이열치열"의 경험을 위해 삼계탕을 찾으러 거리를 나서는 (B)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 22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는 「접속사 +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으므로 which를 and it[sweating]으로 바꿔 쓸 수 있다.
- 23 that of bibimnaengmyeon의 동사가 반복되어 생략된 형태이므로 앞에 나온 부분(The real taste of mulnaengmyeon comes out)의 동사인 comes out을 쓴다.
- 24 차가운 냉면의 매운 양념이나 삼계탕을 여름에 먹어 "이열치열"을 경험한다는 글이므로 ② '여름을 대처하는 한국인들의 방법들'이 주제로 가장 적절하다.  
 ① 약초의 장점들  
 ③ 한 노인의 지혜  
 ④ 차가운 국수와 양념의 조화  
 ⑤ 한국의 여름 음식의 종류들
- 25 주어진 글은 글쓴이가 삼계탕을 먹기 위해 삼계탕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 갔다는 내용이므로 바로 다음에 펄펄 끓는 삼계탕이 탁자에 나왔다는 (B)가 이어지고, 그 다음으로 (B)의 '그것은 이제 이해가 되었다.'라는 의미의 마지막 문장과 (C)의 첫 번째 문장의 '나는 마침내 어르신들의 지혜를 이해했다.'라는 부분과 연결되고, 마지막으로 뼈를 넣는 통을 빈 닭 뼈들로 채웠다는 (A)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 26 The ingredierds와 ②used 사이에 which were가 생략된 구조로, '삼계탕에 사용되는 재료들'이라는 수동태로 using을 과거분사 used로 고쳐 써야 한다.
- 27 뜨거운 여름날 삼계탕을 먹은 후 여름철 우울함을 날렸다는 맥락이므로 satisfaction(만족)을 blues(우울함)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 28 글쓴이가 삼계탕을 먹고 여름날의 우울함이 없어질 것 같다고 언급하므로 'It all made sense now.(그것은 이제 모두 이해되었다.)'가 의미하는 바는 ⑤ '글쓴이는 마침내 여름에 뜨거운 음식이 도움이 되는 이유를 깨달았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삼계탕은 많은 증명된 의학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  
 ② Damil은 글쓴이에게 뜨거운 여름날을 즐기라고 조언했다.  
 ③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삼계탕을 먹는 데 익숙하지 않았을 것이다.  
 ④ 그 노인은 그의 삼계탕이 최고라고 확신했다.
- 29 부사구 With that feeling이 문두에 나오면서 주어와 동사(came)가 도치되는 것에 유의한다.

- 30 글쓴이가 삼계탕을 먹은 후 서울의 더운 여름이 로스앤젤레스의 늦가을처럼 시원하게 느껴졌다는 맥락이므로 빈칸에는 ② '시원하고 상쾌한'이 적절하다.
- ① 춥고 건조한

- ③ 덥고 습한
- ④ 따뜻하고 산들바람이 부는
- ⑤ 쌀쌀하고 추운